

ART BUSAN MONTHLY

예술부산

2023·4
VOL.214



우수콘텐츠잡지
2023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예술회관 기획 _ 문화가 있는 날

예감 — ;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2 0 2 3 년

3 월 ~ 1 1 월

부 산 예 술 회 관

공 연 장 · 전 시 장

- 3. 29.(*)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 해설과 함께하는 세계 명가곡 축제
- 4. 26.(*) 예술단체 백의(百意) - 백의민족 묘기(卯氣)
- 5. 31.(*) 국악그룹 헤이븐 - 첼로와 피아노로 함께 듣는 판소리
- 6. 28.(*) 드 콤마 - 클래식이랑 한바탕 놀아보까?
- 7. 26.(*) TDC양상철 - 움직이는 글: '실내악으로 만나는 문학 작품'
- 8. 30.(*) 극단세진 - 지니스토리 플러스
- 9. 18.(월) - 9. 24.(월) 부산공예예술협회 - 공예에 취(就)하다展
- 9. 20.(*) 이음전통춤연구회 -戀書
- 10. 25.(*) 젊은예술 날라리와 정이 - 토션섬, 행차하신다
- 11. 27.(월) - 12. 3.(월) 주식회사 틀라웨이브 - 디스트릭트 7展
- 11. 29.(*) 정·홍·동 국악예술단 - 이야기가 있는 가마금병창 '얼쑤! 한바탕 놀아보세'

공연장 / 전시장 / 회의실 / 예술아카데미 / 야외광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4 김정현의 팽팡노래교실 13시 30분-15시 30분(공연장) 아카데미 가곡교실 10시-12시(2층연습실) 아카데미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12시(4층연습실)	5 14시-15시 30분 아카데미 아랑고교장구 (2층연습실)	6 아카데미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12시(4층연습실) 아카데미 한국무용 교실 14시-17시 50분(4층연습실)	7	8 부산관악협회 제5회 전국관악경연대회 08시-17시(오전, 오후) 010-6886-5896
9 부산국악협회 부산국악협회 정기총회 13시-17시(오후) 051)644-5211	10	11 김정현의 팽팡노래교실 13시 30분-15시 30분 (공연장) 아카데미 가곡교실 10시-12시(2층연습실) 아카데미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12시(4층연습실)	12 14시-15시 30분 아카데미 아랑고교장구 (2층연습실)	13 아카데미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12시(4층연습실) 아카데미 한국무용 교실 14시-17시 50분(4층연습실)	14	15 남구청 오후 행사(야외공연장) 코미디 오픈콘서트 개그콘서트팀 (박성호, 정병균, 한만호, 트롯동인) 14시-15시 20분 051)607-4064 참여서화원 참여수목회전 010-3862-1222
16 참여서화원 참여수목회전 010-3862-1222	17 김동인 음악과미술전시사이(關)_3층 010-2773-9614	18 김정현의 팽팡노래교실 13시 30분-15시 30분(공연장) 아카데미 가곡교실 (오전) 10시-12시(2층연습실) 아카데미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12시(4층연습실) 참여서화원 참여수목회전 010-3862-1222	19 14시-15시 30분 아카데미 아랑고교장구 (2층연습실) 김동인 음악과미술전시사이(關)_3층 010-2773-9614	20 아카데미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12시(4층연습실) 아카데미 한국무용 교실 14시-17시 50분(4층연습실) 문인협회 제2회 부산문인의날 051)632-5888 김동인 음악과미술전시사이(關)_3층 010-2773-9614	21 김동인 음악과미술전시사이(關)_3층 010-2773-9614	22 국악협회 가아금 병창분과공연 051)644-5211 김동인 음악과미술전시사이(關)_3층 010-2773-9614
23 김동인 음악과미술전시사이(關)_3층 010-2773-9614	24 김동인 음악과미술전시사이(關)_3층 010-2773-9614	25 김정현의 팽팡노래교실 13시 30분-15시 30분(공연장) 아카데미 가곡교실 10시-12시(2층연습실) 아카데미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12시(4층연습실) 김동인 음악과미술전시사이(關)_3층 010-2773-9614	26 14시-15시 30분 아카데미 아랑고교장구 (2층연습실) 문화가있는날 051)631-1377 예술단체 백의 <백의민족 묘기>	27 아카데미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12시(4층연습실) 아카데미 한국무용 교실 14시-17시 50분(4층연습실)	28	29 음악교육신문 부산지사 상반기 콘서트 09시-22시(오전, 오후, 야간) 010-4171-2058
30						



ART BUSAN MONTHLY VOL.214

2023 APRIL 4

CONTENTS

권두칼럼

06 소통의 생명력 _ 손병두

예서제서

- 08 제41회 부산연극제
- 12 제40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 14 뚜벅뚜벅 원도심 건축투어 _ 김새록
- 16 이민아의 춤, 葉 _ 정지영
- 18 최광호 사진: 빛과 중력
- 20 박국영과 친구들 展
- 22 Bridge, 부산판화작가 초대전
- 24 문화공간 콘체르트 보눔 _ 이효민
- 26 음악풍경 짜장콘서트 _ 정지영
- 28 제49회 부산여류전
- 30 강대진 개인전 'The king's garden : 사유의 숲'
- 31 청년작가 3인전 '봄의 휴식'
- 32 제45회 부산수채화협회전
- 34 황령산 봉수전망대



맨드라미 _ 유화, 6호

표지 _ 권용훈

개인전 19회(부산, 서울, 파리, 동경, 북경, 홍콩, 청도 등)
대한민국 수채화 전람회, 아시아 수채화대전 운영위원장 외
국제아트페어 10회 출품(한국, 캐나다, 북경798, 동경, 파리 등)
현) 한국미술협회자문위원, 신미술회 이사, 한국인물작가회, 국가보훈예술협회 부회장,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



포토에세이

36 파란: 낮선풍경 _ 류민형

열린마당

40 반지를 만들다 _ 김정화

44 부산시립극단 창단 전후의 숨은 뒷이야기 _ 김문홍

인물포커스

48 부산사진작가협회 신임 회장 강종관 _ 이효민

예인탐방

50 피아니스트 김소형 _ 정지영

예술가열전 207

52 태승 정태영 _ 이효민

손으로 쓴 문학

56 풀꽃 _ 정현숙

들여다보기

58 국악/ 정악正樂의 멋 _ 김동녘

60 무용/ 부산시립무용단 'The 50_Time to Dance' _ 함수경

62 문학/ 김용삼의 『그녀 모산택』을 읽고 _ 문경희

64 미술/ 2023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_ 구본호

기획연재

68 建築正記IV- 길을 배려하고 삶을 담는 건축 _ 김민수

72 고대의 악기IV-삼국의 악기 _ 임소연

76 부산의 현대무용역사 분석: 부산무용협회를 중심으로 _ 장정윤

82 예총-전시-공연 뉴스

87 신간 안내

90 메세나 광장 & 정기구독회원 모집

2023년 4월 통권 214 <http://www.artpusan.or.kr>

1997년 10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2011년 8월 31일 변경등록번호 부산라-01255)

발행일_ 2023년 3월 24일 발행처_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소_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전화_ 051)612-1372 팩스_ 051)631-1378 이메일_ artbusan@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_ 오수연 편집고문_ 이봉두(건축가회), 김인숙(국악협회), 김갑용(무용협회), 이석래(문인협회), 박태원(미술협회), 강종관(사진작가협회),

이정남(연극협회), 안규성(연예예술인협회), 서영조(영화인협회), 권성은(음악협회)

편집장_ 정지영 편집기자_ 이효민 디자인_ 두손컴 제호_ 김중문

※ 본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발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부산예총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통의 생명력

글_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부산 범일동에 가면 이중섭의 '황소'를 만날 수 있다.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이중섭이 피난 온 곳이 바로 범일동이고, 지금 그곳에 '이중섭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거리를 거닐다 그림 「범일동 풍경」을 마주하면 그 시절 가난한 삶터의 애환이 전해지는 듯하다. 이에 비해 그의 유명작 「흰소」는 힘차다. 소의 역동적인 자세를 거칠게 붓질했다. 「범일동 풍경」과 함께 놓고 보면, '삶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강한 에너지를 느끼게 된다.

부산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가면 한국거래소의 '황소'를 만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황소는 '상승 장세'를 의미한다. 굼직한 두 뿔로 위를 치받는 황소의 공세를 주가 상승에 빚대었다. BIFC의 황소상도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염원하며 두 뿔을 날 세우고 있다. 원래는 BIFC 뒷마당에 있던 황소를 지난 2021년 정문으로 옮기자는 제안을 했다. 우리 자본시장이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무

엇보다 부산 시민들께 조금이라도 가깝게 다가가려는 마음도 컸다. 지금 BIFC 정문에 자리 잡은 황소상을 보면 한국거래소 취임 이후 자본시장과, 또 부산 지역사회와 부대껴 온 지난날들이 스쳐 지나간다.

예술과 금융. 참 어우러지기 힘든 분야다. 이중섭의 황소와 거래소의 황소처럼 모습도, 느낌도 다르다. 하지만 이중섭의 황소가 시대의 고단함을 이겨내려는 꿈틀거림인 것처럼, 거래소의 황소도 거센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맞서려는 몸부림이다. 그리고 그 뜨거운 몸짓을 여럿이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도 궤를 같이한다. 이중섭의 황소와 거래소의 황소에서 '소통의 생명력'을 느낀다. 예술과 금융을 관통하는 메시지도 결국 '소통'이 아닐까 한다.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와 투자자를 잇는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 주식시장이 한창 커나가기 시작할

때는 자본력 있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개인투자자보다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다. 시장의 몸집이 커지는 동안 개인투자자가 홀대받은 면이 적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고치고자 지난해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혹여 대기업이 기업을 쪼개는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까 보호장치도 마련하고, '개미지옥'이라 불리는 상장폐지절차도 다듬었다. 한국거래소가 개인투자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소통의 걸음을 내디뎠다.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렸던 방탄소년단(BTS)의 콘서트 상황을 담은 영화 <BTS: Yet To Come in Cinemas>가 개봉 직후 박스오피스 순위권에 들며 최근 화제가 되었다. 이제는 K-POP 스타의 글로벌 팬층이 두텁게 형성되며 한국 문화 전반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잘 만든 우리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싸게 팔아야만 했던 시절을 떠올리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우리 주식시장은 어떨까? 제값 받고 잘 팔고 있을까?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발언했듯이 '몸집은 어른이지만, 질적으로는 청소년 수준'의 시장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전하다. 역시 소통을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알짜 정보를 영어로 잘 공시하고, 배당금 정보도 미리 알려주는 방향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 중이다. 뒷마당 '황소상'을 앞마당으로 옮기는 자세로 꼼꼼히 챙겨나갈 생각이다.

한국거래소에 취임한 이후 임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부분도 '내적 혁신'과 '소통'이다. 거창한 목표를 내놓고 조직을 다그치면 당장은 외부에 보여주시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 조직원의 피로도만 가중되고 궁극적인 성과를 내지도 못하는 사례를 보아왔기 때문이다.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 했다. 묵묵히 믿고 기다리다 보면 성과는 따라오기 마련이다. 취임 직후 '온통'이라는 익명 게시판도 만들어 보고, '스마트워

크' 프로젝트를 통해 내부 살림부터 살뜰히 챙겼다. 이제 조금씩 변화의 성과들이 보이는 것 같다. 느릿느릿 황소걸음을 걸었지만, 돌아보니 출발선에서 멀찌감치 많이 걸어온 것 같다.

지역사회와의 '소통'도 거래소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지난해 말 부산 지역을 연고로 하는 KRX 탁구단을 창단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초대 감독으로는 부산 출신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남규 대한탁구협회 부회장을 선임했다. KRX 탁구단의 활약상도 기대하고, 스포츠를 통해 부산 지역사회와 진하게 소통하는 모습도 그려본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고민을 함께 나눌 것이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다.

예술에도 트렌드가 있듯이 금융시장도 끊임없이 변한다. 어제의 테마주가 오늘의 폭락주가 되기도 하고, 각종 뉴스와 루머에 시장이 출렁인다. 하지만 클래식 피아노 선율에 지금도 깊은 울림을 받듯이 금융시장에서도 시대를 거둬하면서 살아남은 본연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다양한 소통 활동을 통해 세상의 가치를 더해가는 금융혁신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황소 얘기로 글을 열었으니, 황소 에피소드로 글을 맺어 볼까 한다. 지난 1월 2일의 일이다. 매년 증권시장 첫 거래일은 증권시장의 시작을 알리는 '개장식' 이벤트가 열린다. 증시 활황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진짜 황소를 등장시켜 참석인사들과 자리하게 한다. 그런데 그날 주빈으로 등장한 황소가 사람으로 치면 울렁증이 일었는지 그만 '푸지직' 큼직한 것을 쏟아내는 것이 아닌가. 일견 당황스러운 장면이었지만, 좋은 일을 암시하는 길조라고 한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올 한해 우리 자본시장은 술술 잘 풀릴 것이다. 덩달아 부산 시민들,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이다.

B I J

제41회 부산연극제가 4월 7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개막초청 공연과 함께 막이 오른다. 불
혹을 넘긴 부산연극제가 올해부터 대한민국연극제 부산 예선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시민들과 예술인
이 함께하는 축제로 거듭난다.

이번 연극제는 'B·U·S·A·N'이라는 다섯 개의 섹션을 구성했다. Base는 부산을 대표하는 극단들의
경연무대로, 형식만 경연일 뿐 순위와 서열을 가르는 경쟁이 아닌 새로운 의미의 시상제도를 신설해
참가단체들이 함께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Unique는 지역 신진 예술인 및 미래 공연예술을 이
끌어 갈 이들을 위한 무대이며, Social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온라인에서 개인적 기량을
펼치는 독백경연대회이고, All은 부산 시민들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며, Noise는 유튜브 '부산연극제
채널'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와 토론회를 담는 섹션이다.

개막초청 공연은 극단 [동녘]의 <1945>로 갑자기 맞은 해방으로 혼란스러웠던 1945년으로 돌아
가 오늘의 시대상을 반추하는 작품이다. 한 달여의 일정으로 부산의 봄을 연극 축제로 채울 이번 연
극제는 5월 19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베스트 작품상(부산광역시장상) 등을 시상하며 막을 내린다.

문의_051)645-3759 / 편집실

S

A N

제41회 부산연극제 'B·U·S·A·N'

2023. 4. 7. ~ 5. 19.

부산예술회관·영화의전당·하늘바람소극장 등

부산 대표 극단 공연(Base) 소개

극단 세진

피터스 오딧세이(연출 김세진, 출연 김세진 김민재 박성규 김준호)

프란츠 카프카 원작의 「어느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를 새로운 시각으로 각색한 작품이다. 빨간 흉터 때문에 빨간 피터라 불리는 원숭이 피터가 인간화 되기 위해 노력하며 인간이 말하는 교양이나 취향 등을 배우는 과정을 모노드라마 마임 서커스 라이브 연주 등으로 연출했다.

극단 아이컨텍

룸메이트(연출 박용희, 출연 양승민 강승환 백규진)

원룸에서 동거하는 배우 지망생으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규진과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승환과 승민은 친구다. 아르바이트 중 다리를 다친 규진이 스포츠 도박에 손을 대고 이를 알게 된 친구들의 반응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층의 자화상을 엿보고자 한다.

극단 우릿

우리가 놀이동산에서 만날 때(연출 강인정, 출연 채민수 문석중 강우혁 조한별 강유정 서예은 하현우 박준현 박지연)

폐장을 하게 된 놀이공원에 놀이기구를 타다 죽기로 계획을 세운 사람들과 데이트를 즐기는 커플, 솜사탕가게 주인에게 인생 상담을 하는 알바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머물게 된다. 놀이공원을 찾는 이유가 다르듯 행복에 대한 기준도 각각임을 생각해보는 작품이다.

극단 누리에

임대아파트(연출 강성우, 출연 이재찬 이희선 정수연 우지현 김성열 정지수)

친구 사이인 정호와 재생이 사는 임대아파트를 배경으로 고단해 보이는 꿈과 현실, 사랑이 맞물려 돌아가는 일상을 드러낸다. 급변하는 시대에 작품 임대아파트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놓칠 수 없는 청춘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극단 여정

복녀씨 이야기(연출 김태호, 출연 이현옥 정소희 김성은 강정희)

부산 자갈치 시장 노총각 생선장수 덕구에게 시집은 몽골 아가씨 자르갈과 시장 내 트러블 메이커 박복녀와의 좌충우돌을 담은 작품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두 여자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함께 한다는 것과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관객에게 전하고자 한다.

극단 이야기

위험한 커브(연출 박현형, 출연 박현 강원재 박영준)

커브길 아래에 살며 교통사고를 수습하며 살고 있는 안톤과 로돌프 형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도로 국장 크리그바움의 도로 개선을 약속하자 달라질 자신들의 삶 때문에 국장을 처치하기로 한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 그 기준은 무엇인지,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게 하는 작품이다.

극단 드렁큰 씨어터

최저인간(연출 윤준기, 출연 황자미 손남숙 양지웅)

공사 현장의 작은 컨테이너에 살고 있는 지은은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 처한 희연을 구해주지만 한 공간에 머물게 되면서 갈등을 피해갈 수 없다. 가상의 현실을 극대화해서 이타적인 인류애를 펼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인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묻는다.

극단 스테픈울프

몽심(연출 정아린, 심선화 정아린 김정호 박성한 최민)

쌍둥이 자매 세은과 몽심을 통해 사회 환경의 부조리함, 선택의 여지없이 가해자가 되어야 했던 사람들, 그 시발점이 무엇인지 등 인간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다룬 창작희곡을 무대화했다. 연극에서는 흔하지 않은 정신의학이라는 장르를 보여주고자 한다.

극단 판플

게릴라 씨어터(연출 양재영, 출연 김기태, 이크신 김재욱 황하림 김상호 김한솔 김혜원 문재희 민유원)

적도 없는 전쟁터인 정글에 숨어서 장난감 나무총으로 열심히 전투 연습을 하며 살기 위해 연극을 만드는 4명의 게릴라. 어리석고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은 이 모습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문장에 딱 들어맞는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극단 아티스트리트

알고리즘(연출 박성준, 출연 양민수 박동영 김예빈 박우일 박소윤 윤재근 정희원 김세진)

빅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 시스템이 생활 깊숙이 들어와 인간의 의사결정에 제한된 데이터만 제공하는 현대사회다. 시골 고등학교로 전학 간 경수가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히던 태수를 만나면서 겪게 되는 상황들을 알고리즘이라는 소재를 접목해 구성한 작품이다.

극단 연

시라노(연출 김학준, 출연 송준승 김수경 김상호 이주현 박정연)

귀족 청년 시라노와 크리스티앙, 그리고 이 둘이 함께 좋아하는 시라노의 사촌 누이 록산의 엇갈린 사랑 이야기에서 열등감과 콤플렉스에 갇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 남의 사랑도 받을 줄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준다.

극단 코코

물의 '우비 입은 날'(연출 안로경, 출연 권진희 박수빈 안지환 김대원 박민정 조희원)

편식적인 정보로 권력자들에게 우리의 무의식이 잠재 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음을, 비가 오는데 우산이 아니라 우비를 입었다는 죄목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들어가게 된 주인공 지영은 결국 지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과정으로 보여준다.

극단
B급로타리

시절(연출 권상우, 출연 박지희 임태현)

나와 그가 보낸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폭력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나는 방관자가 아니었는지, 그저 모르는 척 하고 도망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 시절은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로 폭력을 마주해야 하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극단
아센

메카, 그해 따뜻한 겨울(연출 호민, 출연 구민주 황자미 호민)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메카'를 만들며 사는 괴짜 할머니 '헬렌'이 주인공인 이 작품은 인간의 자각에 관한 이야기이며, 순수하고 자유로운 영혼에로의 회귀에 관한 질문이며, 우리네 인생에 대한 정체성의 본질에 의미를 던지는 작품이다.

구분	시간·장소		공연명	예매·문의
Base 부산 대표 극단 공연	웅천지랄소극장 5:00PM	4.15.토 - 16.일	피터스 오딧세이	극단 세진 010.5530.5041
		4.22.토 - 23.일	임대아파트	극단 누리예 051.621.3573
		4.29.토 - 30.일	최저인간	극단 드령큰씨어터 010.4480.8109
		5. 6.토 - 7.일	알고리즘	극단 아티스트릿 010.7155.6217
		5.13.토 - 14.일	시절	극단 B급로타리 010.6432.4476
	하늘바람소극장 7:30PM	4.18.화 - 19.수	룸메이트	극단 아이컨택 010.3591.0626
		4.25.화 - 26.수	복녀씨 이야기	극단 여정 010.3057.1220
		5. 2.화 - 3.수	몽심	극단 스테픈울프 010.3530.2690
		5. 9.화 - 10.수	시라노	극단 연 010.2890.2955
		5.16.화 - 17.수	메카, 그 해 따뜻한 겨울	극단 아센 010.4802.8341
	나다소극장 7:30PM 5. 5.금 5:00PM	4.20.목 - 21.금	우리가 놀이동산에서 만날 때	극단 우릿 010.5385.7364
		4.27.목 - 28.금	위험한 커브	극단 이야기 010.4221.5033
5. 4.목 - 5.금		게릴라 씨어터	극단 판플 010.2519.4190	
5.11.목 - 12.금		물의 '우비 입은 날'	극단 코코 010.5917.5925	
Unique 부산 신진 극단 공연	소극장 6번출구 7:30PM	4.15.토 - 16.일	케밥을 사 왔으면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지	극단 잠방 010.7412.4088
		4.22.토 - 23.토	스펙트럼 분석기	극예술실험집단 초 010.8680.6382
		4.29.토 - 30.일	홀리스	극단 원테이크 010.8120.7867
		5. 6.토 - 7.일	비평가	극단 물레방아 010.6361.2850
		5.13.토 - 14.일	도담도담	극단 단추 010.5759.2370
Social	YouTube	4. 7.금 - 5.14.일	전국 온라인 독백 대회	YouTube 부산연극제 채널
All	남구 평화공원 특설무대	4.29.토 - 4.30.일	부산 시민 공예예술축제	부산연극협회 www.bstheater.or.kr
Noise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4. 7.금 7:00PM	개막식, 개막공연 <1945>	영화의전당 051.780.6060
		4. 8.토 7:30PM	개막공연 <1945>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5.19.금 7:00PM	폐막식	YouTube 부산연극제 채널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영화, 그리고 그 유산을 들여다본다

제40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2023. 4. 25. ~ 5. 1.

영화의전당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모퉁이극장 등

제40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BISFF)가 '영화&유산'을 주제로 개최된다. 기간은 기존 6일에서 7일로 하루 더 확대되었고, 경쟁 부문 113개국 3,582편이 출품한 가운데 선정된 약 143편의 국내외 단편영화를 만날 수 있다.

영화는 19세기 후반 탄생해 20세기에 황금기를 맞았고 21세기 초엽에 도달해있다. 문학, 연극, 미술 등 다른 예술 분야와 비교하면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대중문화이자 예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40주년을 맞이해 영화 예술의 본질적인 유산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화 예술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보며 미래를 일견하고자 한다. 단편영화의 주요한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단편영화의 경계를 깨는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을 소개하고, 영화의 본고장 '미국'을 주빈국 섹션으로 소개하며 전통적인 2D영화는 물론 3D, 실험영화, 인터랙티브 영화 등 다양성을 견지한 창작물을 소개한다.



개막식은 4월 25일 오후 7시 영화의전당 하늘극장에서 열리고 헬리 레만의 <베니스에서의 어린이 자동차 경주>, 아크의 <공간>, 제이 로젠블랫의 <당신은 1년의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나요>를 개막작으로 상영한다. 올해 영화제의 주제를 대표해 선정한 무성 코미디 영화, 실험영화, 다큐멘터리 상영 중 찰리 채플린이 출연하는 작품에서는 영화에 맞춰 랩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폐막식은 5월 1일 오후 7시로 영화의전당 중극장에서 시상식과 폐막작 상영을 함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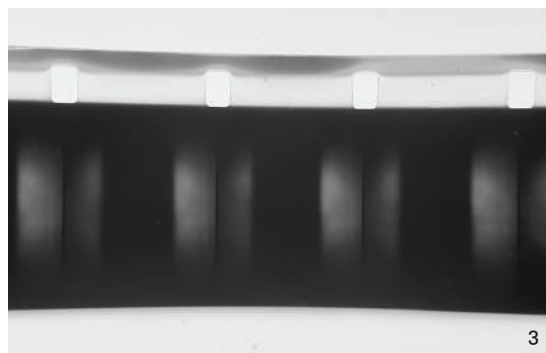
40주년 기념 프로그램으로 BISFF 역대 해외·국내 수상작 초청 상영 및 영화인 초청, 세계 주요 영화제 수상작 초청 상영, 역대 수상작 감독들의 오픈 토크, 홈키링데이 파티 등을 펼친다. 2012년 도입된 주빈국 프로그램은 해마다 한 국가의 영화와 문화를 집중조망하는 것인데 올해는 주빈국 미국의 다양한 단편영화와 공연(랩 퍼포먼스) 등을 볼 수 있다.

경쟁 섹션은 '국제경쟁' 출품작 2,877편 중 예심을 통과한 약 40편의 작품, '한국경쟁' 출품작 705편 중 예심을 통과한 약 20편의 작품, 그리고 부산지역 영화·영상 전공 대학생들이 제작지원을 통해 만든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6편을 소개하는 '오퍼레이션 키노'로 진행한다. '아시아 쇼츠'에서 특정 예술을 선보일 공간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 예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는 5편의 작품을 소개하는 '영화(觀)의 죽음'도 흥미롭다. 그밖에 불안을 주제로 하는 '코리안 쇼츠', 새로운 표현 방법을 탐구하는 '비온드 쇼츠', BISFF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가족 단위 관객을 타겟으로 다양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등 '특별상영' 섹션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상영 프로그램 외에도 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뉴미디어 시네마 워크숍', 급변하는 영화 및 미

디어 패러다임에 관한 담론을 공유하는 '부산국제트랜스미디어포럼' 공동 주최로 영화 산업 논의를 확산하는 한편, 체험 부스 운영, 포스터·행사 사진 등을 전시하는 공간 마련 등으로 관객 가까이 다가설 예정이다.

문의_051)742-9600 / 편집실



1 헨리 레만 <베니스에서의 어린이 자동차 경주> 2 제이 로젠블랫 <당신은 1년의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나요> 3 아크 <공간>

뚜벅뚜벅 원도심 건축투어

WALKING, BUSAN ARCHITECTURE TOUR

봄 햇살이 살포시 품는 날이다. 동백, 목련꽃, 수선화도 덩달아 환호성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삼 년여 동안 함께 어울림이 차단되었던 펜데믹이 해방되자 거리는 한층 생기가 돈다. '뚜벅뚜벅 부산건축투어'에 나섰다. 건축 해설사와 참여 시민이 함께 걷기 하면서 근현대건축물의 특성과 역사성을 설명해주는 투어 프로그램이다. 부산국제건축제에서 주최하고 있다. 4개 지역으로 나눠 올하는 3~6월, 9~11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시행한다. 건물들 명칭만 들어도 발동걸린 호기심이 설레는 곳들이다. 코스별로 나눠져 있다.

A 센텀시티 건축

부산시립미술관, 이우환 공간, BEXCO, 신세계물 S가든, 영화의전당

B 유엔·문화 건축

부산문화회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유엔평화기념관, 유엔기념공원

C 원도심 건축

백산기념관, 옛 한성 1918, 부산기상관측소, 부산주교좌성당, 부산근현대역사관

D 동래 전통 건축

동래읍성임진왜란역사관, 동헌, 장관청, 동래향교, 동래읍성

필자는 일차적으로 '원도심 건축 투어'를 따라나섰다. 함께 참여한 젊은 부부가 초중등 학생인 두 자녀를 데리고 나와 교육의 현장을 익히고 있는 모습이 한층 싱그럽다. 항일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제(1885~1943)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백산기념관에서 모여 출발했다. 이곳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1995년



도에 세워진 기념관이다. '광복의 빛이 들어간다'하여 입구를 피라미드형으로 설계를 했다는 김승희 해설사의 설명이 눈길을 끈다.

백산기념관 곁에는 '한성 1918' 건물이 있다. 한성은행 부산지점이었던 무려 104년이 된 르네상스 양식이다. 수직, 수평의 대칭을 이루고 있다. 외벽이 두껍고 견고함이 압도한다. 지금은 벽돌이 불그스레하지만, 처음에는 벽돌 색깔이 하얀색 1층이었다. 그때는 이곳이 육지가 아니라 바다였다. 지도가 매축 되기 전 바다를 그려놓고 있다. 지하 이층으로 가면 '해안선 석축이 아직도 새겨져 있다. 이 건물은 한성은행 부산지점으로 설립된 이래 약 40년간 은행 업무를 보던 곳이다. 1960년대 개인에게 매각되어 상업 용도로 이용되어 오다 2000년대 들어 철거 위기에 있던 것을 부산시가 사들인 이후에 구조보강 등 3층 건물로 리모델링 과정을 거쳤다. 근대 건축 양식의 깊이를 유지하면서 2018년 4월 지금의 '한성 1918-부산생활문화센터'로 새롭게 탄생되었다.

일정 시간이 발걸음을 재촉한다. '부산지방기상관측소에 도착했다. 이곳은 해양도시 부산을 상징하는 배 모양으로 짧은 건축가들이 건물을 지었다. 자기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표현주의 방식이다. 북병산에 자리를 잡은 부산기상관측소는 바다가 아닌 하늘에서 배가 날아가는 모습이다. 당시 짧은 작가들의 패기 어린 기발함이 서려있다. 외벽은 흰색 띠 돌림으로 물결을 표현한 스크래치 타일이 붙어있다. 정문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장식문처럼 되어 있는 창틀이 특이한 구조로 시선을 붙잡는다. 오르내리기식 목재 창이다. 1934년에 지었지만, 관리를 잘하여 원형 그대로이다. 1904년 '부산측후소로 관측업무가 시작되어 1934년 현재 위치에 자리 잡아 지금까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곳에서 원도심이 한눈에 보인다. 저만치서 그다음 목격지인 '부산주교좌성당'이 시선을 붙잡는다.

불도저로 밀어도 끄덕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것 같은 대한성공회 '부산주교좌성당' 앞이다. 목직함



과 견경함의 그 자체이다. 캐나다 출신 카트라이트 선교사가 1903년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여 부지를 넓혀 가면서 1924년 완성된 건물이다. 벽체가 두껍고 창문이 작은 아치 모양의 로마네스크식 양식이다. 작은 창문은 성지이기에 외부와 차단하기 위함이다. 성당 내부 바닥재도 목재이다. 일부 복원은 했지만,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외벽이 두꺼운 벽돌이라 무거워서 그걸 지탱하려고 제대 위에는 '석조 리브볼트'로 갈빗살 같은 것을 천정에 해놓았다. 버팀목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격이다. 내년이면(2024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세월이지만, 세월의 나이테를 읽을 수가 없다.

봄 햇살도 중천을 지나 살며시 기울어진 시간이다. 원도심 투어 코스 종착지 '부산근대역사관'이다. 이곳은 아픈 역사가 밀려와 몸과 마음이 묵직하다. 자원 수탈 목적으로 세워진 1929년 일제 강점기 시기 건물인 옛 동양척식주식회사이다. 장식 모양을 많이 내지 않고 실용주의 양식이다. 1층과 2층 사이에는 띠가 있다. 태양문이다. 당초(堂礎)무늬가 양옆으로 있다. 해방 이후에는 미대사관을 거쳐 미문화원이었던 민주화운동의 큰 전환점이기도 했다. 지금은 우리 품으로 돌아와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격변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원도심 투어의 건축물들은 약 100년의 세월을 묻고 있다. 발길 닿은 곳마다 구석구석에서 한 줌 빛으로 어둠을 밝힌다. 역사는 살아 있고 현재 속에 미래가 공존하는 현실의 진실을 직시하고 있다.

글_김세록 시인·수필가 / 사진_부산국제건축제 제공

이민아의 춤, 葉

2023. 3. 5.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한 알의 씨앗이 잎을 피우기까지 20년의 시간을 인
내했다. 지역의 중견 춤꾼 이민아는 2003년 '이민아
의 춤-종(種-씨앗)'으로 우리춤 이어가기 시리즈를 시작
해 2014년 순(筍-쌈)을 발아하고, 2017년과 2020년 맥
(脈-줄기)을 키웠으며, 올해 3월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
서 엽(葉-잎)을 피웠다.



이민아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2001), 제97호 살풀이춤(2007) 이수자다. 지난해는 이 춤으로 제46회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고, 이번 공연에서 <승무>와 <살풀이춤>, 그리고 <검무>를 선보였다. 그가 선보인 세 가지 춤은 모두 이매방류다.

이민아의 춤은 꾸밈없이 담백했다. 이민아는 흑색 장삼에 백색 고깔을 쓰고 <승무>를 쳤다. 고깔은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고개를 좌우상하로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정중동의 춤사위로 민속춤의 품위와 격조를 표현했다. 불교의식무 혹은 민속무용으로 그 유래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긴 장삼소매가 허공에서 아름다운 곡선을 그릴 때 분망스러운 인간사의 크고 작은 고뇌도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했다.

이매방류 <검무>는 선생의 조부인 이대조류를 잇는 호남 검무로 섬세한 기예와 날렵한 춤사위가 돋보이는 춤이다. 이름과 달리 살벌함이 없는 검무는 허리를 뒤로 젖히고 공중을 나는 듯 빙빙도는 연풍대가 감상 포인트이다. 검을 놓고 어르는 동작부터 칼을 잡고 행하는 동작까지 이민아의 춤사위는 무거우면서도 간결했다.

이매방류 <살풀이춤>은 고도로 다듬어진 전형적인 지방 예술로서 환과 신명을 동시에 지닌 신비한 느낌을 주는 춤으로 소개된다. 맺고 풀어냄이 기본이 되면서 춤사위 하나 하나 손끝에서 발끝까지 에너지가 표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이매방 선생은 무대에서 춤을 직접 연행하는 무용인이지만 전통 복식을 분석하고 자신의 예술세계에 맞게 디자인하고 제작했던 만큼 이매방류 살풀이춤은 무복도 다르다. 이민아는 이날 살풀이춤에서 이매방의 무복을 따랐으며, 춤사위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였다.

전통춤으로 앞을 피우고 무성한 가지를 더 뻗을 수 있도록 [이민아무용단] 단원들도 이날 힘을 보탤다. 이미란 정남선 김미정 이혜진 김민지 김수진 최수현 등은 국가무형문화

재 제92호 <태평무>와 호남 지방예술 특유의 미학과 맥이 살아있는 이매방류 <입춤>으로 무대에 풍성함을 더했다. 또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3호 동래학춤 전승교육사 이광호는 덧배기춤 가락을 바탕으로 학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동래학춤>으로, 박수일은 단원들과 화려하고 역동적인 동작이 신명까지 더하는 <버꾸춤>으로 응원의 마음을 보탤다.

시대와 환경이 변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만큼 문화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한다. 예술도 마찬가지다. 특히 오랜 세월 우리의 숨결과 정신, 영혼이 반영된 전통춤은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전승과 보전에 힘써야 한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전통춤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작품도 필요하다. 하지만 창작의 옷을 입혀야만 새로운 가치가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발터 벤야민은 '새것을 갖는 게 아니라, 오래된 것을 새로운 가치로 만들면 아무리 오래된 것도 새것이 된다'고 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춤꾼 이민아가 무성한 앞을 피우고 그만의 향기를 품은 꽃으로 관객과 마주할 날도 기다려 본다.

글 정지영



Kwangho CHOI:
Light & Gravity

최광호 사진: 빛과 중력

2023. 3. 30. ~ 5. 5.
아트 스페이스 이신



한국 사진계를 대표하는 중견작가 최광호 작가의 개인전 '최광호 사진: 빛과 중력'전이 아트 스페이스 이신에서 열리고 있다. '숨 쉬듯 사진 찍는다는' 작가의 말처럼 그의 모든 생각과 인식활동, 배제할 수 없는 가족사와 생활모습 등을 확장된 감각 기관인 카메라로 '살아 있음의 증거'가 되는 사진을 예술로 선보여 왔다.

“나의 사진찍기는 내 생각과 느낌이 만날 때 시작한다. 사진으로 사고한다. 태고의 근원적인 나의 본질을 찾아가는 자아알아가기. 원시인이 조개를 줍듯, 무심하게 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나의 사진이다.”(사진전 사색' 작가 노트 중)

작가는 1973년 사진에 입문했으며, 60여 회의 개인전과 100여 회가 넘는 단체전을 통해 자신의 작품세계를 알려왔다. 일본에서 사진을 배운 작가는 그곳에서 확장된 자의식을 전통적 사진 형식에 붙여넣는 시도들을 거듭했다. 「얼굴」 「타령」 「한 컷 반」 「한 룰이 인생이다」 등의 작품으로 즉물적 대

상을 자의적 시퀀스에 동시에 대입하는 방식을 보여주었다. 뉴욕에서 예술을 배운 작가는 사진이 지시하는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탈출해 프레임을 겹치거나 연장함으로써 그동안 구축해온 프레임을 부순다. 「하늘, 땅, 물, 불」 「구멍 동화」는 그의 예술에의 현상적 지향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이번 전시는 '사진에 대한 저항'을 키워드로 지난 50년간 집요하게 이어진 최광호의 작품세계를 조망한다. 1974년의 미발표작 「나」부터 2023년 작 「그리다」에 이르기까지 제작 당시 작가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50여 점의 오리지널 빈티지 프린트들을 만날 수 있다.

문의_010-6235-5123 / 편집실

- 1 빛이란 태양을 향하여, Vintage Silver Gelatin Print, 23.4×15.7cm, 1980
- 2 심상 일기, Vintage Silver Gelatin Print, 17.2×13.5cm, 1977
- 3 그리다10, 종이에 목탄, 립스틱, 44×31cm, 2023
- 4 하나님 똥구멍, Vintage Silver Gelatin Print, 17.2×13.5cm, 1977



함께 걷어가는 길

박국영과 친구들 展

2023. 3. 16. ~ 19. 갤러리화인

부산 화단의 작가들이 동료 작가를 위해 뭉쳤다. 부산미술협회 서양화 분과장을 맡고 있기도 한 박국영 작가가 늦은 밤 작업을 하다 쓰러졌고 수술로 회복했지만 장기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소식에, 병원비 모금을 위한 전시를 자발적으로 기획한 것이다.



전시에는 박 작가의 절친한 친구인 김용옥 손일 작가를 비롯해 김국보 김종택 김지영 김홍련 류승선 박명수 박솔지 신상용 우정 유선경 이동우 이선희 이청남 이희영 조인호 최말에 한인화 허필석 황혜영 총 21명의 작가가 참여했고, 박 작가 본인의 작품도 만날 수 있었다. 작가를 돕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 공감한 많은 이들의 성원으로 첫날 모든 작품이 판매되기도 했다. 1,400만원의 판매액과 미처 참여 못한 작가들이 보낸 소정의 성금은 전부 박 작가의 병원 치료에 쓰인다고 한다.

작업에 열중하던 작가에게 닥친 불행임에도 다행히 수술이 성공한 것처럼, 동료 작가들이 보내는 성원의 힘으로 앞으로의 재활 치료도 잘 이겨내어 계속해서 좋은 작품을 보여주길 응원한다.

/ 편집실

- 1 박국영_In the garden, Oil on canvas, 72.7×50cm, 2022
- 2 김국보_다시 피는 꽃, Gouache on canvas, 53×45.5cm, 2022
- 3 김용옥_Alain Delon(노인과 고양이), Oil on canvas, 27.3×27.3cm, 2022
- 4 손일_편지23021, Mixed media, 22×34cm, 2023
- 5 박명수_secret garden, Oil on canvas, 53×33.4cm, 2022

| 예서제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Bridge. 부산판화작가 초대전

2023. 3. 31. ~ 4. 6. 갤러리 아트톡

1



1 이석순_은하수길, Wood cut, 36×53, 2022

2 김정희_crowd-8, Silkscreen, 60.6×72, 2022

3 서야희_쉼(休) Linocut, 30×23, 2023

4 예경희_My Big Garden, Collagraph(paper, ink, watercolor), 94×66cm

부산판화가협회가 갤러리 아트독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을 담은 'Bridge, 부산판화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 전시 명에는 'Bridge'라는 제목 그대로 판화예술이 지역을 넘어 세계와 연결하고 교류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길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부산판화가협회의 전신은 1970년 [부산판화회]다. 1974년 [요철판화회]를 거쳐 1990년도에 현재의 [부산판화가협회]가 됐다. 부산판화인이 중심이 되어 판화 미술의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에 힘쓰고 판화의 국제적 위상을 고취, 현대판화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이번 전시는 김정희, 서야희, 예경희 등 부산판화가협회 회원 15명을 주축으로 판화의 매력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이 녹아있는 콘셉트와 저마다 다른 표현법의 판화작품들은 관람객에게 감상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송협주 회장은 “부산판화가의 다채로운 작품을 펼쳐 보이는 이번 전시는 새로운 봄에 희망과 힐링을 전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당부했다.

문의_010-5758-7105 / 편집실



문화공간 콘서트트 보눔

지하철 전포역 6번 출구에서 도보 1분, 이라는 말보다 '전리단길' 건너편이라는 설명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부산 대표 변화가인 서면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지만 외려 더 '힙'한 거리에 콘서트트 보눔이 있다. 커피와 샌드위치와 고양이, 그리고 음악이 있는 곳이라는 콘서트트 보눔을 찾았다. '54회 예감살롱콘서트'가 열린 토요일 저녁, 1층 입구에는 '오늘 공연'과 '다음 공연'을 소개하는 포스터가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2층 문을 열면 빛의 음영을 활용한 조명이 눈길을 끈다. 웨인스코팅 몰딩으로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한 공간은 관객이 앉는 테이블과 아티스트가 자리하는 무대가 맞닿아 있어 '살롱Salon' 콘서트라는 이름에 잘 어울렸다. 빈티지한 가구, 벽마다 걸

린 미술 작품, 고풍스러운 샹들리에와 커튼 장식, 자유로운 테이블 배치도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한몫하고 있었다.

콘서트 보נם을 만든 이상호 대표는 그 이력이 독특하다. 경성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미디MIDI를 독학하며 음악을 배웠다. 연극과 인연이 닿아 2019년 <폭풍 속에서>, 2020년 <지워진 이름 부마>, 2022년 <1979 부마 그 촛불의 시작> 등 창작 뮤지컬을 제작했는가 하면 레코딩 스튜디오로 시작한 예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휴]라는 팝페라 듀오를 기획하고 소속 가수로 지원하며, '예감'은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도 받았다. 예감살롱콘서트는 2008년부터 개최했는데 지금의 건물에 터를 잡자마자 팬데믹이 터졌다. 올해 2월에 51회 콘서트를 열기까지 헛수로 3년이 걸렸으니 그간의 어려움도 짐작이 되지만 기어코 살롱콘서트를 재개한 '독심'이 남다른도 알 수 있다.

예감살롱콘서트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반에 시작하는데 6월 24일까지는 퓨전국악 팀 [국악양상블 첼로], 클래식양상블 팀 [도담양상블], 재즈 트리오 [이달현 트리오], 팝페라 듀오 [휴] 4팀이 번갈아 가며 공연하고 하반기에는 새로운 출연진을 선보인다. 이날 무대에 오른 [도담양상블]은 'Mickey plays the flute'라는 이름으로 디즈니 OST를 들려줬다. 도담양상블의 대표 겸 작곡가인 강유가 플루트를 주인공 삼아 그만의 스타일로 편곡한 곡들은 오리지널 곡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했다. 익숙한 OST 속에 다른 클래식이 삽입되는 식으로, 클래식 팬에게는 '아는 만큼 들리는' 선

율을 찾아내는 재미도 있는 셈이다. <미녀와 야수> 등 8~90년대 디즈니 전성기 곡 메들리부터 격정적인 연주가 돋보인 <겨울왕국2> 대표곡 'Frozen', 서정적인 감성이 묻어나는 <코코>의 'Remember me'까지 감상하니 1시간이 금세 지나간다. 수준 높은 피아노,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연주를 코앞에서 '생귀'로 들은 덕분과 노래와 유머로 관객과 소통한 강유의 막힘 없는 진행 덕분이다.

서로의 표정을 보며 즉각적인 호응이 가능한 살롱콘서트는 확실히 대형 공연과는 다른 묘미가 있다. 공연을 재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10명 내외의 관객이 라이브 연주를 독점해서 들었는데, 최대 인원인 40명이 채워져도 이 공간에서 받을 수 있는 감동은 여전한 태다.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대표가 콘서트 보נם이라는 공간을 가꾸고 예감살롱콘서트를 지속하는 건 결국 관객 때문이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던 한 관객이 버킷리스트 삼아 공연을 보러 왔다가 그 공연에 감화해 계속 살아보기로 했다면 놓고 간 편지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예감 또한 '예술적 감동'이란 뜻으로 지었었는데 어떤 관객이 '예기치 못한 감동'을 받았다고 말한 것에 착안해 현재는 그 뜻을 타이틀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 대표는 그럴싸한 수식어보단, 콘서트 보נם을 그저 '문화공간'으로 여긴다. 행복한(보נם) 음악 모임(콘서트)이 있는 이곳이 예술 창작자와 향유자를 이어주는 작지만 소중한 문화공간으로 오래도록 자리잡길 바라본다.

클_이호민





음악풍경 짜장콘서트

2023. 3. 23. 오후 7시 30분 부산예술회관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대표 김창욱)의 '짜장콘서트'를 이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맞볼 수 있게 됐다. 짜장콘서트는 김창욱 대표가 퇴근 후 음악회를 찾는 직장인들의 고충을 배려해 저녁밥과 연주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구상한 프로그램이다. 2019년부터 동아대석당박물관, 부산박물관, 부산도서관 등에서 매달 짜장콘서트를 열어왔는데 올해는 부산예술회관에서 관객과 만나게 됐다.

도심의 풍경은 '연두연두'하고 있지만 미세먼지에 완전한 봄을 즐길 수 없었던 3월 23일, 반가운 비 소식과 함께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제44회 짜장콘서트가 열렸다. 이번 콘서트는 '거품 짝 뺨 오페라: 동백 아가씨'로 19세기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를 소규모 편성해 무대화했다.

무대가 밝아지고 첼리스트 문혜정이 가요 「동백아가씨」를 연주했다. 느긋하게 음악회 시작을 기다리던 중 예상치 못한 첫 곡에 하뭇한 미소가 절로 피어났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 동백 아가씨~'. 중후한 첼로 선율을 따라 「동백아가씨」 가사를 음미하며, 동서양 동백 아가씨들의 순정을 떠올려 보기도 했다.

〈라 트라비아타〉는 국내 최초로 소개된 서양 오페라인 동시에 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그래서 가장 즐겨 찾는 오페라이다. 1948년 조선오페라협회가 서울 시공관에서 처음 공연한 〈라 트라비아타〉는 청춘남녀인 알프레도와 비올레타의 순수하지만 비극적인 사랑을 그렸다. 주요 등장인물은 파리의 고급 매춘부인 비올레타 발레리(소프라노), 시골 출신의 부르주아 청년 알프레도 제르몽(테너), 알프레도의 아버지 조르주 제르몽(바리톤) 등이다.

오페라는 성악·기악과 같은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예술이다. 여기에 연극적 요소, 무대미술, 무용, 무대의상, 무대장치, 소품 등의 볼거리가 더해지는 대규모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세 명의 주인공과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반주로 규모를 최소화하고, 옛 영화상영에서나 볼 수 있었던 번사^幕가 이야기의 흐름을 짚어주는 식으로 진행했다.

지역의 중견 성악가인 소프라노 정혜리, 테너 양승엽, 바리톤 강경원이 「이상하다, 이상해(E strano! e strano)」 「아, 그이었던가(Ah, forse lui)」 「언제나 자유롭게(Sempre libera)」 「빛나고 행복했던 어느 날(Un di felice, eterea)」 등 주요 아리아를 들려주었다. 바이올린 원아름, 첼로 문혜정, 피아노 정은희로 구성된 앙상블 [프로뮤지카]가 연주와 반주를 맡았고, 연극배우 박센이 번사로 분해 음악회의 흐름을 이끌었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에서 빠질 수 없는 「축배의 노래(Li biamo, Li biamo)」를 앙코르로 청해 들으며 짜장콘서트는 막을 내렸다.

애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오페라를 통해 카타르시스와 함께 숨기고 싶었던 인간의 적나라한 내면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예술감독과 연출에 따라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고 색다른 묘미를 감상할 수도 있어 같은 작품도 여러 번 보게 된다. 오페라를 이루는 중요 요소인 아리아, 레치타티보, 앙상블, 코러스 등은 모두 원어로 불려지는 만큼 즐거리나 주요 아리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다면 오페라를 감상하는 폭이 더 넓어져 그만큼 즐거움도 배가 된다. 이야기 전개와 주요 아리아의 내용까지 짚어주는 '거품 짝 뺀 오페라: 동백 아가씨'를 보면서 오페라 예습용으로 '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어 하무뭇했다. 올해 짜장콘서트는 오페라 외에 다양한 형식의 음악회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라고 하니 한 달에 한 번은 콘서트를 즐겨볼 일이다.

공연이 끝나고 20명에게 부산예술회관 인근 중화요리 전문점에서 맛볼 수 있는 짜장면 식권이 제공됐다. 식권은 사전 예약자 중 선착순 20명에게만 제공되는 만큼 다음 달부터는 '광클'이 필수다.

45회 짜장콘서트는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노래I: 신하람 황동환 편'으로 4월 27일에 열린다. 부산에서 비약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청년음악도의 무대다. 창작동요를 비롯해 한국가곡, 가요,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등 다양한 노래를 들려줄 예정이다.

문의 051)987-5005 / 글_정지영



청년작가를 만나다
제49회 부산여류전

2023. 4. 24. ~ 29. 부산시청 제3전시실



가시마다 돌아난 연초록빛의 여린 손들이 봄이 왔음을 알리는 이즈음, 제49회 부산여류전(회장 권소연)이 '청년작가를 만나다'라는 부제로 부산시청 전시실을 특별한 봄향기로 채운다.

서로 다른 대상이 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소재로 삼기도 하면서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제시한다. 다양한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들은 작가에게 새로운 영감을 던져주고, 관객에게 삶을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1975년 미술을 전공한 7명의 여성 작가들의 의기투합으로 시작된 [부산여류전]은 50여년의 시간 동안 여성 작가로서의 감성을 담은 작품으로 미술 애호가들에게 꾸준히 말을 걸어왔다.

이번 전시는 세대 차이를 넘어 작품으로 서로 교류하며 예술적 영감을 주고 받아 창작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청년작가들과 함께한다. 권소정 회장을 비롯해 최말애, 이숙희 박선민 윤순호 등 18명의 부산여류전 회원과 김미소 박민경 배지운 등 청년작가 10명이 참여해, 유화 동양화 판화 등 현대미술의 다양한 양식과 새로운 감성을 돋우기 위해 제작한 28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관계자는 “작가들이 영혼의 한쪽을 허물어가며 형상화시킨 작업이 관객들에게 공감과 힐링을 제공하고, 때로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던 미적 감각을 살려내기라도 한다면 참여 작가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 될 것”이라며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전시장을 찾아주길 당부했다.

문의_010-3863-9441 / 편집실

- 1 문현경_사랑을 담고, Wood cut, 40×60cm
- 2 김영주_MOMENT(순간), 혼합재료, 72.7×50.3
- 3 박선희_old future, Wood cut, 60×60cm
- 4 양형미_의식+무의식(감성정원), Acrylic on canvas, 72.7×53.0cm



2023. 3. 16. ~ 30. 갤러리휴

강대진 개인전

‘The king's garden : 사유의 숲’



왕의 정원_캔버스 위에 혼합재료, 162x130.3cm, 2022

새벽녘에만 만날 수 있는 특유의 푸른빛이 있다. 동트기 전 소나무 숲에 들어선 듯 신비로운 '왕의 정원'을 만나는 전시가 지난 3월 갤러리휴에서 열렸다.

강대진 작가는 「왕의 정원」 연작을 통해 송고한 '아우라'가 느껴지는 소나무 숲의 풍경을 선보이고 있다. 이는동이 트기 전, 운무가 자욱한 새벽에 경주 남산 왕릉 주위에 있는 소나무 숲에서 '블루'로 보이는 소나무를 만났던 경험에 기반한 것이다. 오후규(부경대학교 명예교수·철학박사)는 그의 작품에 대해 "오래 보면 볼수록 신비로움, 왕의 기운, 천지간의 위력, 희망, 욕망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기운을 느낀다"고 말한 바 있다.

작가는 끈게 흰 소나무 몸통의 질감을 살리기 위해 아크릴과 돌가루 혼합물감을 나이프로 하나하나 찍는 작업을 반복해 요철을 만드는데, 대부분이 200호 이상 대작이라 한 작품을 보통 달포 이상 작업한다고 한다. 그의 작품에 담긴 신비로운 작업함은 '블루'의 깨끗하고 청아한 빛깔과 만나 관람객에게 사유의 시간을 선사했다.

/ 편집실



청년작가 3인전

봄의 휴식

2023. 4. 17. ~ 29. 이젤갤러리

수영구 '망미단길'에 위치한 이젤갤러리에서 청년작가 3인이 '봄의 휴식'을 주제로 자연이 주는 위로와 감정을 저마다의 화법으로 담아낸 작품을 선보인다.

세 작가는 동양화 재료를 기반으로 작업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현칠 작가가 한국화의 전통적인 세필 모사로 그린 '작은 개'는 정현칠 작가의 시선을 대변한다. 휴양지 또는 산림으로 보이는 상상 속 풍경은 그에게 힐링의 대상이다. 하지혜 작가는 한지에 스며든 물색의 질감과 치밀한 붓 터치로 이름 모를 '풀'의 힘과 의지를 유기적으로 표현하고, 자유롭게 피어난 풀에서 '나'와 '우리'를 발견케 한다. 박영환 작가는 인간의 삶과 감정을 평면 작업, 퍼포먼스, 설치로 표현한다. 그가 장지에 먹으로 그린 자연의 소재들은 그 사물을 뛰어넘어 감정을 투영하는 그릇으로써 다양하게 변주된다.

이번 전시는 수년 전 지역 청년작가의 작품을 통해 위로와 행복을 받았던 한 기업인의 대관 후원으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기업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뜻하는 '메세나' 정신을 실천하는 작지만 큰 후원이 지역 예술계에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

문의_051)753-4808 / 편집실

1 하지혜_풀이동동, 한지에 채색, 65×53cm, 2022

2 정현칠_휴(休), 한지위에 수묵담채, 67×90cm, 2021

3 박영환_지내오면서 필연적으로, 장지에 먹, 72.7×60.6cm, 2022



수채화의 확장과 그 의미
제45회 부산수채화협회전

2023. 4. 17. ~ 22. 부산시청 제2·3전시실



45년 역사를 지닌 부산수채화협회(회장 김화주)가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부산시청 제2·3전시실에서 정기전을 개최한다.

부산수채화협회는 1970년대 서양화가 7인이 모여 결성했고 현재는 원로작가인 조규철 선생이 후배 작가들의 큰 기둥으로 남아 있다. 정회원 55명은 대부분 수채화를 전문으로 하는 작가들이지만, 서양화와 한국화 등 타 분과임에도 수채화를 사랑하는 작가들 역시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정기전의 부제는 '수채화의 확장'과 그 의미로 색의 번짐과 겹쳐 나오는 오묘한 물색, 작가들만의 개성 있는 표현 방식으로 비구상과 구상을 넘나드는 수채화 작품을 전시한다. 특히 전준자·안영찬·이보순·띠그란 어코피언(러시아)·엠디 사비르 알리(인도)·이태훈·김미소·임예빈 등 타 장르 작가 8인을 초대해 수채화의 의미 확장을 꾀한다.

부산수채화협회 회장 김화주는 “수채화 장르의 전문성에 대한 깊이와 폭넓은 의미 확장을 함께 감상하는 전시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당부했다.

문의_010-3458-5382 / 편집실

- 1 이종원_혼돈, 수채, 30p
- 2 김화주_서간문(書簡文), 수채, 83×43cm
- 3 박준희_내안의 너, 수채, 25×25cm
- 4 김정영_여울림, 수채, 72×53cm

중심을 꿈꾸는
부산 문화 관광의

황령산봉수전망대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 배경

황령산(높이 427m)은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구, 연제구, 부산진구에 걸쳐 있는 금련산맥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으로, 산정이 비교적 평탄하고 소규모의 성채 경관을 나타내는 기반암이 노출되어 있다. 북동쪽으로 금련산과 연결되어 있는데 부산 시민들은 금련산과 황령산을 엄밀히 구분해 부르진 않는 편이다. 동래부 때인 1422년에 군사상 중요한 통신수단인 '봉수대'가 산 정상에 설치되었다. 지리상 부산의 중심을 아우르는 황령산은 환경 외에도 역사와 문화, 미래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가 생성될 수 있는 곳이다. 과거의 봉수대가 부산의 동·서·북쪽과 연결되어 있었듯이 서부산과 동부산을 연결하는 '황령산 봉수전망대'를 통해 기존 해양관광중심이던 부산 관광구조를 뛰어넘어 전망(야경 포함)관광 및 생태관광으로의 콘텐츠 다변화를 꾀하는 게 대원플러스그룹(회장 최삼섭)의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 배경의 하나다.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봉수전망대

360도 조망 전망대, 스페이스 워크(Space Walk)와 같은 관광문화공간 외에도 부산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은 특별한 외관 형태만큼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면모도 갖출 계획이다. 다목적복합문화전시홀이 될 봉수박물관(Media Art)은 부산 역사 스토리텔링 공간이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전시를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복합문화예술공유센터(Culture Staytion)는 부산의 예술문화 창작자들을 위한 작업 및 전시 공간, 그리고 황령산의 자연과 연계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밖에 '부산성'을 살리는 부산노포음식문화체험관(Taste of Busan)은 노포 식당은 물론 조리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부산 음식 체험관이자 푸드 페스티벌 개최 공간이다. 외부에 위치하는 260m 길이의 숲속 전망길은 산책길이자 길 위의 도서관, 팝업갤러리, 숲체험공방 등의 문화 체험행사가 열리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부산 대표브랜드 확보와 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장기간 논의가 있어 온 황령산은, 대원플러스그룹이 총사업비 2,000억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부산시에 접수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관건은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와 환경 훼손의 최소화다. 역사문화유산인 봉수대 재생이라는 모티브와 '친환경' 개발이 되기 위한 로프웨이 설치 등이 청사진대로 잘 반영되어 부산 시민은 물론 문화예술계에도 유익한 명소가 되길 바란다.

/ 편집실



파란: 낮선풍경





사각형의 세상 속에서 항상 그들에게 질문한다
그들의 세상과 그대들의 자리는 나에게 항상 낯설고 생경스럽다
한발 한발 발걸음으로, 그들의 바람자국으로,
그대들의 세상을 아주 조금 느껴본다

그들은 많은 시간동안 그들의 세상에 있었지만,
나는 그대들에 항상 가까이 있었지만,
그대들의 바람소리, 바람자국은 낯설다.
그저 조금, 아주 가끔씩 그들과 조우할 뿐이다.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 역시 그들을 알지 못한다.
그저 어색하고 낯설게 오늘도 그대들에게 인사를 건넨다.
하지만, 그대들은 아무런 말이 없다.

글·사진_류민형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

Unfamiliar
scenery

반지를 만들다



커피를 내리는 남자의 손가락이 빛난다. 아니, 오른손 검지를 덮은 커다란 은색 반지가 번득인다. 도대체 저 투탕카멘의 마스크 문양 반지는 어디서 파는 것인가. 그리고 보니 커피잔을 잡은 왼손 엄지에도 치우천왕 같은 도깨비 얼굴을 그린 사각 반지를 끼고 있다. 독특한 디자인이라 커핑링도 아닐 터이고 남들이 흔히 끼는 약손가락이 아니므로 결혼반지는 더더욱 아니겠다. 노련한 핸드링으로 라테아트를 완성시키는 손길 따라 민망함도 잊은 채 내 눈길도 함께 흘러간다.

“만들었어요.”

마음을 읽었을까. 남자가 커피잔을 건네면서 잠시 두 손을 치켜들어 보여준다. 요즈음은 장신구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공방이 유행이라고 한다. 자신만의 개성에 맞게 자유로운 문양으로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나만의 액세서리를 만드는 것이다. 전문 세공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핸드메이드 반지 제작이 가능하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서너 개의 반지만 하더라도 금은방에 진열된 디자인으로 주문을 한 것이거나 주얼리숍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기분 따라 골랐거나 여행지에서 기념으로 구입해 온 것이다. 그것들은 특별히 의미 있는 반지가 아니며 귀한 보석도 없고 디자인조차 촌스러운 것들이어서 평소 한쪽 서랍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그런데 뜬금없이 반지가 하나 갖고 싶다. 바리스타 그 짧은 남자처럼 빛나는 반지를 끼고 있으면 매년 시들부들 찾아오던 나의 봄도 올해는 싱싱 생기가 돌 것만 같다.

관심을 가지면 보이는 법. 동네마다 반지 공방이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다. 연인과 부부와 동료와 친구들이 저마다의 문양으로 만든 기념 반지를 끼고 손을 포갠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려놓았다. 내친김에 스스로 만들어보기로 한다. 집과 가장 가까운 광안리의 한 작업장에 전화 예약을 하고 찾아갔다. 평일의 조금 이른 시간이었어서인지 실내는 조용하다. 꽤 넓은 작업장에 생각보다 많은 기계와 소도구들이 널브러져 있다. 제품에 대해 주인장의 꼼꼼한 설명이 이어지더니 생각한 디자인을 묻는다. 나는 편편한 실버 링에다 수필가답게 에세이라는 영문 이니셜을 새기기로 했다. 그러면 수필에 대한 금지와 작가정신과 창작에 대한 마음가짐이 단단해질 것만 같았다.

먼저 손가락 치수를 측정하고 반지의 굵기도 선택하였다. 이미 완제품으로 전시된 여러 종류의 반지를 꺼 보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드디어 그가 손가락 길이만 한 얇은 막대기 하나를 잘라왔다. 반지의 주재료인 실버 막대인데 이것을 한 시간여 다듬으면 반지가 될 것이다. 좀 더 긴 것을 선택하면 팔찌가 될 터이고 더 넓은 것을 두드리면 목걸이 펜던트도 될 수 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러나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것. 비단 이 작은 금속만 그려볼까. 자식되기 학생되기 친구되기 연인되기 어른되기 주인되기 손님되기 부모되기 선생되기 작가되기 후배되기 선배되기 그리하여 점점 인간이 되어 가기... 내 삶도 새로운 '되기'의 연속 과정이었지만 제대로 완



성되지 못하고 늘 형태만 일그러졌다. 이 막대도 망치질과 사포질을 하고 불을 가하여 마침내 반지되기에 이를 터인데, 어쩌면 비틀고 구부린 완성품보다 지금의 미끈한 재료가 가장 완벽한 은의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순은 막대에 힘을 주니 약간 휘어진다. 이제 작업대 위에 놓인 숫자와 영문 펀치에서 새기려고 준비한 단어 'ESSAY'를 순서대로 골라 도장 각인을 할 차례다. 이니셜 펀치를 은 바^{bar} 위에 올리고 망치로 두세 번 때려서 글자를 새겨야 한다. 그런데 기계 작업이 아니므로 간격과 높이를 맞추기 어렵고 절대 의도대로 나오지 않으니 쉽지만은 않았다. 우선 연습 판에 몇 번 탕탕 두들겨보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시작한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첫머리 글자부터 비틀배틀 튀어 오른다. 어찌하겠는가, 핸드메이드의 매력에 의미를 둘 수밖에. 그리고 보니 평소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모두 맞았는가. 반대로 타인이 틀렸다고 우긴 것도 모두 틀렸던가. 나도 틀릴 수 있고 당신도 맞을 수 있는데 그것을 깨닫는 데는 참으로 오래 걸렸다.

이니셜도 새겼으니 이번에는 둥글게 말아서 이음새를 붙여준다. 은가루를 녹여 틈을 메우고 토치로 용접한다. 파란 불꽃으로 시작하더니 점차 붉은 열꽃을 뿜어낸다. 어느새 끝과 끝이 만나 둥근 고리로 연결되었다. 뜨거워도 조금만 참으면 연결되는 것. 세상일이 다 그럴진대 불꽃이 일기도 전에 포기하거나 너무 욕심을 부려서 시커멓게 그을리기도 했었다. 접합한 상처는 울퉁불퉁해도 사포로 다듬으면 다시 매끈해질 수 있는 법. 천천히 순리대로 따르면 다 해결되었다.

이제 손가락 사이즈에 맞춰야 하리. 기다란 쇠봉의 11포인트에 줄을 긋는다. 그와 함께 반지를 맞췄을 때도 같은 치수였지. 한 짝만 끼는 것을 반지^{半指}라 하며 쌍으로 끼는 것을 가락지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는지. 반지의 원형이 둥근 이유는 그 테두리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도 당신이 말했던가. 만

약에 반지를 빼지만 았았다면 우리의 사랑도 99퍼센트 순은처럼 반짝거렸을까. 그 반지들은 어디로 갔을까. 쇠봉을 이리저리 돌리고 뺏다가 바꿔 끼워가면서 나무망치로 두들겨주니 표시한 눈금까지 도달하였다.

반지가 모양새를 갖추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수평을 맞추고 줄과 핸드 글라인드로 모서리를 둥글게 깎고 사포질로 광택을 내는 일이 남았다. 자잘한 기스와 작은 균열과 거슬거슬한 결면까지 사포질 몇 번에 반드르르 해졌다. 뒤편지 깎고 다듬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다. 뼈를 깎는 고통까지는 아니더라도 잠시 한눈파는 사이에 상처가 나고 출혈도 생긴다. 그래도 애벌레가 환골탈태하여 나비가 되듯이 고통 뒤에 찾아오는 환희경도 있지 않은가.

인간은 언제부터 반지를 썼을까. '지구상의 모든 종족 중에서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 종족



은 있으나 장식을 하지 않는 종족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듯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당연히 인류 기원과 반지의 역사도 궤를 같이하였을 터. 지금처럼 화려한 보석 반지나 값나가는 금가락지와 세련된 은빛 링은 아니더라도 나무 열매를 둥글게 파고 조개껍데기나 조약돌에 구멍을 뚫거나 짐승의 뼈와 이빨로도 흠을 내어 만들었을 것이다. 그것이 미적 장식이든 종족의 표시나 권력의 상징이든 인류 역사와 같이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수많은 고분과 유골단지과 박물관을 통해서 동서양의 옛 반지들을 보아왔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는 만인 앞에서 자신의 반지를 후계자에게 끼워줌으로써 권력의 승계를 상징했다. 아울러 로마의 초상화가 달린 인장반지, 중세의 종교반지, 심지어 르네상스 시대에는 반지에 독을 넣어 암살용으로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놀라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양이 없는 소환을 비롯하여 금은 반지, 유리구슬 반지, 격자무늬 반지, 옥반지 등이 고분의 껍묻거리로 출토되었다. 그러한 왕족의 반지와 조선시대 양반의 호박이나 백옥 반지라도, 심지어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마법의 힘을 지닌 절대 반지라 할지라도 과연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나만의 반지와 견줄 수 있을까.

아, 캐나다의 철근반지 이야기는 감동적이었다. 오래전, 캐나다 퀘벡의 세인트 로렌스강 다리 공사가 무너져 많은 작업자의 희생이 있었을 때였다. 부실 공사로 무너진 구조물에서 뽑아낸 철근으로 반지를 만들어 토목 기술자들이 꺾으로써 나태해지려는 마음을 바로잡으려는 일이었다. 엄청난 피해를 상기하며 책임 의식을 잊지 말도록 하고 자신의 일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라는 무언의 충고였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공학도들은 졸업 반지로서 그 정신을 이어오고 있다.

드디어 내 반지의 광택 작업도 끝났다. 마지막으로 세척을 한 뒤 물기를 닦고 톡톡하던 손가락에 채워본다. 반짝! 은색 등불 하나, 온몸을 밝힌다.

글 사진_김정화 수필가

부산시립극단 창단 전후의 숨은 뒷이야기

부산시립극단은 올해 창단 25주년이 된다. 지역의 어느 연출가는 자신이 창단 주역이라 하고, 또 어떤 연극인은 자신이 부산시립극단을 창단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고 한다. 뜬소문의 정체를 알아볼 작정으로 지역의 원로 연극인인 김동규 선생님을 만나 액터스소극장에서 허심탄회하게 부산시립극단 창단에 얽힌 비화를 들어보았다. 선생은 한국연극협회 부산지부장과 (사)한국예총 부산광역시연합회(당시는 부산지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강 이남에서는 최초로 경성대학교에 연극영화과를 개설했다.

Q 김문홍 선생님께선 현존하는 부산연극인들 중에선 제일 연배가 높은 원로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선 올해 우리 나이로 여든일곱이신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A 김동규 네, 그런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들리고...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누구나 다 겪는 일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청기는 들을 필요가 없는 소리까지 잡아내는 바람에 아예 끼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일 이외엔 외출을 삼가고 있는 편입니다.

Q 김문홍 올해로 부산시립극단은 창단 25주년이 되었고, 올해 안으로 부산시립극단 창단사가 발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몇몇 연극인들이 자신이 부산시립극단을 창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선 시립극단 출범 당시 5인 예술감독위원회의 위원장 직책을 수행하셨었죠. 제가 알고 있기로 선생님께서도 창단의 한 축을 담당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얽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A 김동규 그게 아마 1997년 5월 하순 무렵이었을 겁니다. 저는 당시 부산예총 회장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문정수 시장에게 문화예술에 관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수행 비서를 통해 만남을 요청했고 시장관사로 찾아가 독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열다섯 가지 건의사항 중에 부산연극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부산시립극단 창단에 관한 내용도 한 꼭지 들어있었죠. 제가 부산연극인들의 뜻을 전달했더니, 문 시장께서 두말하지 않으시며 “그럼 내년에 창단합시다. 담당 기획관에게서 연락



이 올 겁니다”하고 시원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한 달 뒤 6월 하순에 기획관으로부터 연락이 와 관계 서류를 제출해 달라기에, 경성대 연극영화과 허은 교수와 당시 부산연극협회장인 김경화 연출가를 불러 시립극단이 창단될 것 같으니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었죠. 그래서 주도면밀하게 관계서류를 준비해 부산시 기획관실과 문화예술과에 접수시켰습니다. 이후 그해 7월 21일자 『부산매일신문』에 “시립극단 연극계 숙원, 시립극단 내년도 창단”(박명자 기자)이라는 기사도 나오면서 공식적으로 표면화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시립극단 창단에 관한 기사가 줄줄이 어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해인 1998년 1월 12일자 『부산일보』 기사엔 당시 부산문화회관 관장이며 시립예술단 부단장인 신윤범 씨가 ‘5인 예술감독위원회’의 긍정적인 면을, 담당 기자는 부작용을 언급했고, 같은 날 『부산매일신문』엔 저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시립극단은 앞으로 대극장 작품을 주로 공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소리를 하건 그게 무슨 상관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시립극단이 창단되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Q 김문홍 제가 한국연극협회 부산지부장으로 재직하던 1989년 당시에도 부산시립극단 창단을 위한 세미나도 열고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시립극단의 필요성에 관한 바람을 일으키긴 했지만, 부산시와 시립예술단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얼마 안 가 흐지부지 되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몇몇 기록을 보면 그 훨씬 이전에도 시립극단 창단이 필요하다는 움직임과 제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열린마당

다. 선생님께 한 말씀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A 김동규 네, 더러 있었던 걸로 압니다. 저만 해도 여러 매체를 통해 부산시립극단 창단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가 있었죠. 1978년 1월 11일자 『부산시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쪽지에 부산시립극단 창단에 관한 언급을 했고, 1987년 4월 11일자 『부산일보』 기사에 “부산시립극단 창단돼야”라는 제호의 기사가 실렸는데, 그 기사 속엔 제가 “목요시민 논단”에서 주제 발표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1992년 제가 부산연극협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에도 부산시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부산시립극단 창단에 대한 건의도 한 일이 있었죠.

Q 김문홍 다시 시립극단 창단 전후 시기로 말머리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시립극단 창단 전체인 1997년 11월 저도 ‘시립극단 창단준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첫 모임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 이 모임이 두 번쯤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임 때 그 자리에 참석해 보니 이미 시립극단 창단 로드맵에 관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져 주최 측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더군요. 그 자리에선 그냥 그런 사실을 추진하는 것으로만 진행되어 좀 의아했습니다. 그 회의에 선생님께서도 참석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김동규 당시 기록을 보니 창단 준비위원은 모두 14명이었습니다. 부산시 측에선 문화체육관광국장과 문화예술과장, 시립예술단 측에선 문화회관 관장 겸 시립예술단 부단장, 학계에선 서국영, 김동규, 황두진, 김재우, 허은, 연극계에선 전성환, 김문홍, 김경화, 허영길, 이운택, 언론계에선 이문섭 등 모두 14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임에서 ‘5인 예술감독위원회’로 김동규, 전성환, 허영길, 이운택, 김경화 등 5인이 발표되었고, 역시 춘향으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학과를 운영해야 하는 책임감과 건강상의 이유로 고사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산시장에게 시립극단을 창단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직책을 고사하면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아 위원장직을 수락하긴 했습니다. 아마 5인 예술감독위원회와 같은 집단 지도 체제로 출범한 건, 처음부터 예술감독 1인 체제로 운영하면 예술감독 한 사람의 전횡과 독단적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5인 예술감독 위원회로 출범하여 시립극단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로 임했었습니다. 12월 2일 시립예술단에서 5인 감독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서신이 부산시립예술단에서 왔기에, 당시 예총에선 서국영, 김동규, 전성환, 김경화, 황두진 등 5명을 5인 예술감독 위원 후보자로 추천해서 시립예술단에 보냈는데, 나중에 그 뚜껑을 열어보니 처음의 서국영, 황두진 두 사람은 빠지고 대신 그 자리에 이운택, 허영길이 두 사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립예술단에서 최종 확정된 걸로 짐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누가 조언했는지 모르지만 단독 예술감독 대신 5인 예술감독위원회로 출범한다는 것, 그리고 창단공연부터 98년, 99년 공연 계획까지 이미 결정되어 있어 저로서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Q 김문홍 창단준비위원회 모임에서 시립극단 운영 방침을 비롯한 조직 형태 등에 관해 부산연극

인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부산시립극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옳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모든 일이 흐트러져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A 김동규 당시 저는 김경화 연극협회장에게 공청회를 소집한 다음, 그 자리에서 시립극단의 운영에 관한 모든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누차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엔 부산시 문화예술과, 시의회 조례 제정 담당자, 연극협회, 각 대학 연극 관련 학과, 대학 연극 동아리, 부산시 교육청 담당 장학관, 각 고등학교 연극 담당 교사들이 공청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저의 이런 소망은 아예 무시되고 밀실 행정으로 몇몇 사람만이 회동하여 부산시립극단의 조직과 운영 등이 결정되었다는 게 첫 단추를 잘못 꿰게 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미 5인 예술감독 위원회의 조직과 공연 로드맵까지 이미 결정되어 있어 의아했습니다. 98년의 창단공연, 2회의 객원연출, 3회 공연까지 결정된 상태에서 창단공연 연출을 제가 맡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공연 스케줄 역시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당시로서는 시립극단 출범이라는 현안 사업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Q 김문홍 지금 연극인들 사이에서 부산시립극단 개혁에 관해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부산시립극단 개혁이 가능하다면 어떤 것들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김동규 저는 처음부터 부산시립극단의 공연 작품은 대극장주의 레퍼토리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명작 고전 중에서 어떤 작품을 보고 싶으면 부산시립극단의 작품을 참고로 하라고 할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려고 했지만, 공청회 개최의 불발로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간 상태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립극단의 공연 작품은 연출자의 독단적 창의성이 아닌 보편적 해석을 통한 정통연극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부산시립극단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작품을 공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앞으로 5인 예술감독 체제가 끝나고 단독 예술감독 체제로 전환되더라도 부산시립극단만의 개성 있는 밑그림을 5인 예술감독위원회에서 확정지어야 했는데도 그럴 겨를이 없이 바쁜 일정에 쫓긴 것이 결정적 실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어떤 예술감독이 부임하더라도 그대로 지켜나가야 할 부산시립극단 고유의 공연 레퍼토리 선정 원칙과 운영 방침이 모든 연극인의 합의 하에 개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 무엇을 했느냐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문홍 오랜 시간 대담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를 계기로 부산시립극단 창단 전후에 관한 의혹이 풀렸으면 합니다. 선생님 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대담_정리_김문홍 극작가연극평론가

부산사진작가협회 신임 회장

강종관

- 한국사진작가협회 제24대-제26대 이사, 해운대구 사진가회 회장 역임 외
- 현) 한국미래사진연구회 회장, 해운대예술사진작가회 지도교수, 해운대문화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 (사진창작과정) 출강 외



부산사진작가협회는 지난 2월 25일 제62차 정기총회에서 강종관 후보를 제3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강종관 후보는 '사협의 위상을 높이고 새 역사를 쓰겠다'고 역설했다. 사진을 공부하고 사진과 함께해온 강 회장에게 부산사진작가협회(이하 부산사협)의 미래, 그 청사진을 들었다.

회장 선거에 출마한 건 강 회장에게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었다.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두 번의 이사직을 맡아 일했었지만 온전히 협회를 이끌어가는 건 또 다른 일이라, 깊이 고심한 끝에야 출마를 결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나서고 나니 회원 한 명 한 명이 더 눈에 들어왔다. 그의 공약이 와닿아서 한 표 행사하겠다는 익명의 연락을 받았던 일이 강 회장은 잊히지 않는다. 덕분에 조용히 부산사협의 미래를 염려하는 재야의 회원이 많음을 알 수 있었고 그들의 마음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됐

다. 그래서선지 당선의 기쁨과는 별도로 두려운 마음도 생겼다. 혹시나 놓치는 건 없는지 싶어서다.

"나 자신을 늘 되돌아보게 됩니다. 계획을 차근차근 따라가는 것이 두려움을 일소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강 회장은 여타의 사진가들이 그러했듯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청소년기를 보냈다. 1981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입사하며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를 아껴주던 선배가 카메라를 한 대 선물했는데, 그건 아마도 그가 사진을 좋아하는 것이 주변의 눈에도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카메라를 손에 익히던 중 지방으로 근무지 이동을 하고, 그곳에서 사진작가 한 사람을 만나 '사진을 본격적으로 해보라'는 권유를 받는다. 그때 출품한 공모전에서 '입상'이라는 뜻밖의 성적을 거두지만 그때는 작품이 좋은 이

유를 물었을 때 명확히 대답할 소양이 없다는 생각에 겁이 났다고 한다. 공부에 대한 열망이 깊을 때 마침 부산에 오게 됐고,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사진을 공부하며 사진정보공학 석사를 마치게 된다. 이후로도 공부를 이어갔으니 돌이켜 보면 '사진에 미쳐서' 해낼 수 있던 시간들이었다.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카메라로, 경천동지라 할 만큼 급격한 변화를 겪은 게 사진 예술이다. 그 격변기 속에서 많은 일을 겪은 강 회장은 사진가와 작품에 대한 대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부산의 사진 문화는 아직 품에 정당한 가격을 책정하는 데 인색한 게 사실이다. 앞으로 부산사협은 공항, 크루즈선 등 시민을 만나는 공간에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에게 '좋은 사진'을 알리는 데 앞장서려고 한다. 더불어 작가들 자신도 변화해야 한다. 연구를 통해 미학적인 심미안을 갖춰 '사진의 예술성'을 심도 있게 논하며, 있는 것을 모방하고 답습하기보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 않는 것이다. 사진의 가치는 작가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작품을 한정판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모든 것에 우선한 사진 문화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 사진 강사'를 배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사진계의 석학들과 협회에 있는 전공자들, 부산예술회관이라는 공간을 활용해 부산에만 200여 개가 있는 문화강좌 교육 기관에서 검증된 부산사협 강사가 사진을 알려주게 하는 것이다. 강사 수준의 질적 향상은 전반적인 사진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일이라 이를 위해 민간자격증 발급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다. 그밖에도 '2040 사진 공모전'과 같은 젊은 사진가 유입을 위한 '색다른' 사진 공모전 개최, 원로 회원들이 연륜을 이용해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획위원

회' 신설 등을 통해 사진 예술계와 부산사협의 미래를 탄탄히 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협회를 특히 강조하는 그는 어떤 의욕도 없는 사진 공모전과 사진 대전을 치러서 부산시민들에게 사진으로 인정받는 부산사협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회원 건의함'을 신설해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운영에 반영할 생각이다. 홈페이지에 익명 또는 실명으로 남길 수 있는 게시판의 형태라면 부담 없이, 또한 지역적 거리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남기기 쉬운 거란 생각에 빠르게 시행하려 한다. 회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협회만의 장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산사협 기부금 제도를 만들어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을 구상하는 한편, 이전에 '해운대관광사진공모전'을 해운대구청에 제안해 만들었던 경험에 기반해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조도 이어간다. 협회 차원에서 스폰서를 구해 사진 봉사를 하는 건 사진에 대한 인식 변화는 물론 협회원 간의 결속도 다질 수 있는 방안이다.

강 회장은 부산사협에 대한 회원들의 자긍심을 잘 알고 있다. 입회하기가 까다로운 만큼 회원들은 분명한 애정과 비전을 품고 있고 이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발산하도록 돕는 게 집행부의 역할인 셈이다. 임기 동안 숨 가쁘게 달려갈 그의 행보와 '회원이 주인인 사협, 자립하는 사협, 깨끗한 사협, 위상 높은 사협, 시민과 함께하는 사협, 공부하는 사협'으로 거듭날 부산사진작가협회의 내일을 응원한다.

"약속을 어기는 걸 참 싫어합니다. 잘해야 하겠다, 앞으로 잘해야 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글_이호민



봄 받을 일구는 농부를 닮은

피아니스트 김소형

- 동의대학교 예술디자인체육대학 음악학과 교수/대학원 예술치료학과 교수
- 부산음악협회 부회장
-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회장 외 다수
- 하와이대학교 음악학과 한국학연구소 초청 외 독주회 20여 회
- 저서 『피아노 교수학 총론』(공저)
- 논문 『통합예술치료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외

피아니스트 김소형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는 연주가로 교육자로 저술가로 분망하다. 늘 '이번이 마지막이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즐거운 스트레스라 표현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합니다. 피아니스트로 개인 연습은 당연하고, 지금은 학생들이 가진 건강한 에너지를 잘 키워줘야 하는 학교 강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연주가 잡히거나 논문을 써야 할 게 있으면 그에 맞춰 시간을 안배하고 있지만 강의를 듣는 학생들과 연주에 귀 기울여 주는 관객, 책을 구입하는 독자를 생각하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The Boston Conservatory에서 석사를, University of Hartford에서 피아노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마치고 1997년 12월 귀국했다. '아희(雅熙)음악제' '음악예술학회' 등 20여 회의 독주회를 열었으며, 포항시립교향악단(2002) 대구시립교향악단(2007) 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2010) 등과 협연했다. 부산창작음악축제, MBC목요음악회, 김소영·유영욱의 동화를 품은 음악회 등 서울 부산 제주를 오가며 연주가로서 역량을 펼쳐왔다.

숙제를 끝낸 기분이었던 첫 독주회는 그에게도 통과해야 할 의례였지만, 이제는 음악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순간의 긴장과 설렘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단, 음악적 깊이든 테크닉이든 모든 면에서 조금이라도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마음가짐은 변함없다. 책에서 발견한 단어 하나, 글을 쓰면서 느끼는 감정들,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얻는 에

너지 등이 내재되어 어제와 오늘의 브람스가 다른 분위기를 내는 것이다. 올해부터 부산음악협회 부회장으로 작은 힘을 보태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들을 공유하는 일상생활의 경험들도 음악 속에 녹여내는 그다.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피아니스트 김소형이 생각하는 관객에 대한 예의다.

2020년 하와이대학교와 하와이 한국학연구소 공동 초청 독주회 이후로 한국 작곡가 작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그는 매년 한두 작품은 꼭 한국 작곡가의 곡을 연주한다. 내년쯤 계획하고 있는 독주회에서도 한국 작곡가들의 멋진 작품을 소개하려 한다.

“다섯 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습니다. 피아노는 평생 함께하겠지만 노후에 더 재밌게 보람되게 보내기 위한 해답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예술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15년에 동덕여자대학교 통합예술치료 과정에 노크했습니다. 수업이 목요일이었는데 매주 수요일 밤이면 얼마나 설렸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 조부모 밑에서 자랐기에 어른들을 대하는 것이 스스로 없었던 그는 복지관에서 오랜 시간 봉사를 해왔다. 하지만 특별한 자격증을 갖춘 게 아니어서 도움을 주는데 한계를 느꼈다. 마침 복지관 어른들이 음악치료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서 정년 이후에 음악치료를 공부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그런 그에게 부친은 음악치료 외에 다른 장르도 같이 공부하면 좋지 않겠냐고 조언을 해주었고, 길을 찾던 중에 통합예술치료를 알게 된 것이다. 2018년 2월에 동덕여자대학교 통합예술치료학 국내 1호 박사가 되었고, 부산에서는 신생 학문이었던 탓에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에 동의대학교 대학원 과정으로 예술치료를 개설했

다. 관련해서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놀이 활용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연구」를 비롯해 「치매노인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연구」 등 8편의 논문도 발표했다.

학위를 이수한 그는 방학 때 부산진경찰서와 동구경찰서에서 가정폭력피해 아동들을 만나 전문성을 살린 봉사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건강할 때 지켜야 할 것은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도 중요하기에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지역 곳곳에서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그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어서 할 수 있었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경험했던 벅찬 감동을 지인들에게 ‘전도’ 중이다. 전도는 제자들에게도 이어진다. 지역에서 전업 예술가로 산다는 그 고단함을 알기에 제자들이 전공이 아닌 진로를 모색할 때도 머리를 맞대주며 용기를 북돋운다. 뒤돌아보지 않도록 대학 다니는 동안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조언을 곁들여서.

봄을 맞아도 가을의 풍요를 꿈꾸는 농부는 ‘아차’하는 사이 지나갈 시간을 아껴 부지런히 밭을 일군다. 기자 출신 언론인인 아버지에게 글쓰기 재능을, 여고 때까지 피아노를 쳤던 어머니에게 음악적 감성을 물려받은 그는 봄 밭을 일구는 농부의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한다. 세상에 빛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저 혼자 빛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기에 수양의 시간마저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그다. 변함없는 마음을 견지하며 사람들 속에서 돌출^{뽕뽕}하게 빛나길 바라본다.

글_정지영



꿈꾸는 화가

태송 정태영

· 개인전 5회, 고회전(2008년), 초대전 및 동인전 다수
· 현) 한국미술협회 회원, 부산미술협회 원로작가,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 부산전업작가회 자문,
부산사생회 원로 외

정태영 선생은 1939년생으로 부산 화단의 원로 화가이지만, 그의 작품과 정신세계는 그 틀을 뛰어넘는 창의력과 열정으로 충만하다. 실제 살아온 삶의 행적 또한 여타의 말로 규정할 수 없으니 2013년 출판한 그의 수필집 『아직도 나는 꿈꾸는 나그네』에서 착안해 감히 그를 '꿈꾸는 화가'로 지칭해 보았다. 잊을 수 없는 고향 풍경에서부터 아름다운 생명력의 환희, 이제는 저 천체의 섭리까지 화폭에 담은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실재하는 세계가 예술가의 정신을 관통해 일련의 작품으로 환원되고 비로소 우리의 눈에 담긴다면, 작품은 우선 그 작품세계를 구축한 예술가의 경험과 의지에 영향을 받아 탄생했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 선생의 작품과 그 변천 과정은 그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양분으로 삼고 있으리라 본다. 그는 산세가 수려한 경남 합천을 본향으로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린 날 친구들과 앞산 뒷산을 누비고 시냇가에서 물장구치며 놀던 개구쟁이 시절을 잊을 수 없다는 그는, 비범한 이의 유년기가 으레 그러하듯 개천의 진흙으로 점토를 만들어 동물과 사람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풍경화를 그려 사랑채 문에 붙여 놓기도 했다. 1945년 광복을 맞아 '한글 교육 1기생'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가 당시 교사들의 열의를 온몸으로 받았고 명문인 진주중학교에 진학하며 이른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산수(山水)가 넘어서까지 붓을 잡게 하려고 그랬는지 주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청소년 시절, 그에게는 미술에 눈을 뜨게 하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 초등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즐기면서 그리는 그림을 알려 준 사람이다. 오후에는 특별 지도까지 해주었다니 선생의 재능을 일찍 알아본 건지도 모르겠다. 진주에서 학교를 다니면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예술제인 '영남 예술제'(이후에 '개천예술제'로 이름이 바뀌었다.)에서 다채로운 예술 행사를 보게 된다. 맑은 진주 남강 자락의 축석루 옆 언덕 광장에는 백일장, 웅변대회, 미술 실기대회 등이 열렸고 역시나 선생은 미술 실기대회를 눈여겨보며 '그림 그리기' 꿈을 키웠다고 한다. 겨울 방학이 되어 고향 집에 가면 따뜻한 쉼동 사이에서 추위를 이기며 수채화를 그리던 그는 끝내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산 사범대학(현 부산교육대학교) 미술과를 선택해 기나긴 미술 여정에 오른다.



환희(동일염원), 유화, 15호, 2015

순진하고 천연한 이웃과 꼬마 학생들과의 추억이 서린 거제도 의 작은 어촌 부락 초등학교는 선생의 첫 발령지였다. 이후 채용 시험을 거쳐 중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경북과 경남을 거쳐 부산에 등지를 틀었다. 교사 재직 시절에도 [토백회] [맥 동인] 등으로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한 선생의 초기작은 80년대까지는 고향의 산과 들 같은 농촌 풍경을 주로 담고 있다. 90년대까지 보이는 작품 경향은 생동하는 바다와 산 등 자연의 소재를 사실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조화로운 색채의 깊이 있는 어울림이 안온한 감상을 준다. 그런 한편 대상의 이미지를 순간 포착해내어 자신만의 미학으로 생성한 작품은 감상자로 하여금 단순히 그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 풍경을 그린 선생의 정서와 관점이 전달되는 느낌을 받게 한다. 이러한 변화는 가속되어 경험한 사실에 근거해 자연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반추상의 형태로 화법이 발전한다.

작품에 다양한 풍경이 담기고 변화한 것은 선생의 삶도 멈춰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생은 수필집에 친우에게 터놓고 이야기하듯 솔직한 문체로 가족과 취미, 삶의 철학을 기술하였는데 누구나 '멋진 삶'이라고 감탄할 법한 삶을 꾸려왔음을 알 수 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나왔음에도 긍정적이고 활력에 찬 자세를 견지했기에 근묵자흑(近墨者黑)이라 그런 지인들과 함께 했을 테다. 교직에 있을 때도 축구, 배구 등 스포츠를 즐기며 전 교유회 교직원 우승을 2차례 거뒀고 겨울, 여름 할 것 없이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녔으며 바다 낚시의 묘미도 즐기는 등 여가를 여가답게 보냈다. 동료들과 함께, 더욱이 각자의 부인들을 대동해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일주일간 전국 일주를 한 에피소드는 참신하기까지 하다. 어찌 보면 최근에서야 유명해진 웰빙(well-being)을 누구보다 먼저 실천한 선구자인 셈이다. 36년 교직 생활을 교감으로 마무리하고 명예 퇴임한 후에는 바둑을 두고 주 3회 테니스를 치면서 틈날 때면 색소폰 연주에도 열을 올렸다. 마치 어린 시절 고향 마을로 회귀하듯, 도심을 벗어난 지역에서 잡초와 씨름하고 밭을 일구며 '흙'이 알려주는 섭리를 맘 흘려 배우기도 했다.

평범한 것이 더 어렵고 귀한 시절이 요즘이다. 선생은 화가이기 전에 부인을 존중하고 자식을 정성으로 키우고 손주를 사랑으로 품는 화목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온 이에게서 말을 수 있는 바르고 정직한 향기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물론 창작물에도 묻어나는 법이다.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 선생의 작품 경향은 더욱 자유롭고 심층화되면서 주제 의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사포에 크레파스를 사용해 색감이 도드라지는 작품으로 순수한 동심의 일면을 보여 주기도 하고 '통일'이라는 민족 염원을 향한 꿈을 반추상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고희(古稀)에 접어들면서 즐거움(快樂)과 환희 등을 주제로 한 작품을 통해 터질 듯 차오르는 생명 에너지를 붓 터치 한 번,

한 번에 담아낸 점이다. 이즈음에 이르러서는 풍경화를 그려도 단순히 있는 형상을 그렸다기보다, 대상의 본성을 일정 부분 내재한 것으로 읽힌다. 색이든 형태든 선생이라는 예술가의 '필터링'을 거치면서 곧고 깨끗하게 가슴에 스며드니, 쉬이 잃어낼 수 없는 정신적인 세계를 직감적으로 무의식에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선생의 작품은 또 한 번 도약한다. 암 투병이라는 최대의 고난을 기적적으로 극복한 선생은, 삶의 에너지 뿐 아니라 죽음이라는 명제에 대해서도 사유하게 된다. 하늘과 우주 같은 천체 이미지와 그 속에 담긴 섭리에 천착하며 정신세계의 차원을 높이고 이상 세계 혹은 이상 세계로의 상승을 화폭에 담아내는 것이다. 신비로운 색감의 분리와 조합은 어딘지 천상의 것을 옮겨온 듯한 몽환성으로 실재세계에서 정신세계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듯하다. 같구하는 군중의 무리인지 그저 도약을 점점이 표현한 것인지 모르게끔 본능적인 붓 터치는 자연스레 '저 위'를 상상하는 두근거림을 선사하기도 한다. 선생이 직접 "암 투병 후로 색의 영감을 터득해 지상 외 천상의 빛, 꽃길, 비단길 등을 오방색으로 조화시키며 천지 변화의 모습을 음과 양, 오행의 원리로 구상했다"고 말한 데에서 작품 변화의 이유와 흐름을 짐작할 수도 있다.

전국 시니어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할 만큼 건강을 회복한 선생은 작년 10월경, 이전에 살던 주택을 개조해 금정구 남산동에 '태송갤러리'라는 전시 공간을 만들었다. 1층은 이런 저런 정리가 더 필요해 작품 몇 개를 겹쳐두었고 2층은 아치형 입구와 통로가 근사한 전시장, 3층은 오롯이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작업실이다. 10가지가 넘는 취미 생활에도 다작(多作)을 한 덕에 이곳에서 선생의 작품 흐름은 물론 그 예술혼까지 느낄 수 있어 소중한 공간이다. 언젠가 '미술 박물관'을 짓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지라 태송갤러리는 은연중 그 이



언덕에서(가덕항). 15호, 2018



천상의 비단길. 10호, 2019

전의 실험적인 공간인 면도 있지만 여하간에 본인의 작품을 제대로 정리하여 전시해놓는 것은 작가로서 유의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개인으로서도 화가로서도 풍요로운 '인생 2모작'을 거두고 있는 선생은, 화단의 원로로서 부산미술에 애정과 걱정이 깊다. 서울에 비하면 미술의 인기가 낮고 여건도 여의치 않지만 그림에도 작가들이 먼저 그 수준을 높여서 부산미술의 위상을 높일 것을 조언한다. 예술가로서 부단히 노력하는 시간을 길게 가지라는 것이다.

자유롭고 트인 사고에서 나오는 창의력과 낙천적인 성격으로 모두를 아우르고 화합하게 하는 성품은 선생의 인간적 매력이다. 부산에 원로작가회가 부재한 것이 늘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는데, 최근 정태영 선생을 포함해 원로작가 6인을 발기인으로 하는 [원로작가회] 결성을 준비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이번에 결성되면 '모범적인 원로'로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부산미술을 포용하려 한다. 지난 2020년 세상을 떠난 故 문순상 화백의 화실에 무명작가 2인만 남아 스승 없이 그림 그리는 것을 본 선생은 차마 지나치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그림을 봐주고 있기도 하다. 이런 포

용력과 인품이야말로 원로 화가로서 존경을 일으키는 자연스러운 힘일 것이다.

서문에 밝힌 것과 같이 여타의 말로 규정할 수 없는 정태영 선생의 미술인이자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나름대로 짚어 보았으나 부족한 것은 그의 작품을 직접 감상하고 음미하여 채우길 권한다. 꽃샘추위가 가지지 않은 3월의 어느 날 태송갤러리 2층 벤치에 앉아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 후에 선생이 보내준 글월로, 못다 푼 선생의 작가론(作家論)을 전하면서.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작가의 기본이며 그 속에 묻어가는 작품들은 고난에 찬 투쟁이며 영혼의 울림이어야 한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기록의 울림은 계속되어야 하고 깊은 고통 속에 이루어 내는 결실이 되어야 한다. 아무도 건지 않는 눈길을 개척하는 마음으로 역경을 딛고 언제나 쫓꾸는 나그네로 한 걸음 전진할 따름이다. 먼 훗날, 혼한 이름 석 자의 흔적이라도 남기고 싶어서.”

글_이호민

No. 15

품꽃

정현숙

보랏빛 젖꼭지가 유난히 아리던 날
바람이 묵말래운 꽃씨 한참 바라봤다
터잡을 낫선 땅에서
웃음 활기 말란 듯

외벌꽃 쥐손이풀 민들레 봄구슬봉이
어쩌면 우리자매 모습같은 안부같은
어머니 가슴양지서
초록 싹을 키웠을

작가노트 | 품꽃에게 다정한 안부를 전하는 4월에...

글_정현숙 시조시인

RE: VIEW

- 국악** 관객 몰입형 사운드 기술로 엮은 공연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
정악正樂의 멋_김동택
- 무용** 부산시립무용단
The 50_Time to Dance_함수경
- 문학** 현재의 눈을 통해 과거를 조망하는, 그를 프리뷰하다
김용삼의 『그녀 모산택』을 읽고_문경희
- 미술** BAMA가 부산미술에 남긴 것과 남겨야 할 것
2023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_구본호

관객 몰입형 사운드 기술로 옛본 공연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

정악正樂의 멋

글_김동녕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우리의 음악은 크게 나누어 보면 궁중이나 선비들에 의해 연주되던 '정악', 그리고 일반 민중들이 즐기던 '민속악',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생겨난 '창작음악'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 나온 창작 음악을 제외하면 한민족 고유의 전통 음악을 양분하는 것은 정악正樂, 민속악民俗樂이다. 이 두 음악은 상반된 음악으로 간단히 말하면 정악은 궁중에서 연주되던 음악, 양반이나 선비들이 즐겼던 음악이고 그와 달리 서민들이 즐기던 음악을 민속악이라고 한다. 국립부산국악원에서는 3월 10일(금), 11일(토) 양일간 '기악단 정기연주회 <정악正樂의 멋>'을 공연했다. <정악正樂의 멋>은 궁중과 상류층에서 연주되던 음악인 정악 무대로 「영산회상靈山會上」 중 「관악영산회상管樂靈山會上」과 「영산회상」에서 파생된 「별곡別曲」으로 구성된 공연이었다.

전통음악 「영산회상」은 '상령산' '중령산' '세령상' '가락달이' '삼현도드리' '하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 '군악' 이렇게 아홉 개의 작은 악곡으로 구성된 모음곡인데, 상황에 따라 마치 몇 곡을 빼기도 하고 다른 악곡을 더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구성으로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간단히 말하면 어린 시절 블록처럼 여러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큰 특징 중 하나이다. 기본 구성은 실내에서 연주하기 좋도록 가야금, 거문고, 대금, 해금, 피리, 장구 등 각 악기를 하나씩만 편성하는 구성인데 거문고가 중심이 되어 음악을 이끌기 때문에 「거문고영산회상」, 「현악영산회상」이라고 한다. 이 「현악영산회상」을 조금 색다르게 연주하고 싶을 때 '도드

리'나 '계면가락도드리' '양청도드리' '우조가락도드리'로 구성된 모음곡인 「천년만세」를 더 하기도 하고 주어진 시간에 비해 음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원래 「영산회상」의 악곡 중 몇 가지를 빼기도 한다. 이런 음악을 '별스럽게 연주한다'는 의미에서 '별곡'이라고 한다. 이번 공연에서 첫 번째 연주된 곡이기도 한 별곡은 '도드리'부터 시작해서 「영산회상」과 연결하는 가락인 '돌장'을 거쳐 '삼현도드리' 4장으로 이어지고 '하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 '군악'을 연주한 후 「천년만세」를 더하는 구성으로 「영산회상」의 악장 순서에 따른 재미있는 음악성과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무대였다.

두 번째 곡인 「관악영산회상」은 보통 큰 행사가 있을 때 야외에서 연주하던 음악으로 피리, 소금, 대금, 해금, 아쟁 등의 관악기와 좌고 장구 등으로 구성해서 힘차고 장중한 멋을 내는데, 음이 너무 낮은 '하현도드리'를 빼고 총 8개의 곡을 연주한다. 궁중에서 연주할 때는 「표정만방지곡表正萬方之曲」이라는 제목을 쓰기도 하는데 올바름을 만방에 드러낸다는 뜻이다. 피리가 먼저 가락을 마무리하면 다른 악기들이 남은 가락을 받아 연주하는데 마치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올바름이란 그렇게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언뜻 들으면 딱딱한 느낌의 곡 같지만 관악기 특유의 자유로운 리듬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형식대로 딱딱하게 연주하는 것과는 다른 분위



기를 주며 관악기 특유의 높은 음이 많이 등장해 관악합주의 백미로 뽑히는 곡이기도 하다.

정악이란 단어의 뜻을 직역하면 ‘정대하고 바른 음악’이란 뜻이 되며, ‘아정한 음악’이라는 뜻을 내포한 아악과 같은 개념으로 쓰이기도 했다. 정악이 지칭하는 음악 장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했는데 ‘조선초기’와 ‘일제해방시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의미가 변화해 왔다. 조선 초기의 정악은 아악과 같은 뜻으로 통일되어 쓰이는 경향이 많았다. 이 시기에는 문화예술의 중심이 중국이라는 생각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데 중국의 문화를 따르고 우위로 삼는다는 의미로 아악을 정악이라고 불렀다. 일제 해방 시기에는 조선 초기보다 정악의 의미가 확대되었다. 조선 초기의 정악은 오직 아악만을 일컫는 용어였지만, 일제 해방 시기에 정악은 한국 전통 음악의 일부를 칭하는 단어가 되었다. 시대가 변하며 정악의 의미가 넓어진 배경에는 빠르게 유입되는 외래문화로부터 우리 전통문화를 지키고 보존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일제 해방 시기를 지나 현대로 접어들면서 정악은 ‘조선정악전승소’에서 가르치던 「가곡」 「영산회상」 「여민락」 등을 칭하는 단어가 되었고,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후대에 전승된 전통 음악이라는 의미까지 내포하게 되었다.

이번 공연에는 중요한 시도가 있었는데 바로 이머시브 사운드(immersive sound: 실감형·몰입형 음향)로 관객에게 다가가는 첫

무대라는 것이다. 이머시브 사운드는 360도 방향에서 소리를 전달하는 기술로 관객을 중심으로 360도 방향에 설치된 스피커로 소리를 전달해 공연의 몰입감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기술로 간단히 휴대폰에 적용된 ‘공간음향’과 같은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아직은 극장에서 듣는 음향처럼 전후좌우 화려한 음향효과가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관객들에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소리, 국악 특유의 자연스러운 울림을 전달하기 위한 이런 시도들이 모여 새로운 형태의 국악공연이 개발되고 발전하여 관객들이 더욱 몰입하고 기억에 남을 무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대중가수의 온라인 콘서트에는 세계 76만 명 정도가 동시 접속해 관람하기도 했고, 최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 초실감 콘텐츠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언택트 시대에 맞춰 ‘프로젝션 매핑’, ‘인공지능 조명’, 관객 몰입형 ‘이머시브 사운드’ 등 감각을 깨우는 첨단 기술과 예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 공연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고 실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많은 기술 즉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악 공연계는 시도도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만 바라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새로운 준비와 용기 있는 시도를 한 국립부산국악원에 박수를 보내며, 이런 의미 있는 시도를 통해 조금 더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국악공연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부산시립무용단

The 50_Time to Dance

글_함수경 잉스문화예술교육연구소 대표

부산시립무용단은 2월 25일(토)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The 50_Time to Dance'를 주제로 50주년 역사를 기념하고 자축하는 공연과 기념식을 열었다. 무용단의 50주년 기념 다큐 상영과 축하공연 그리고 부산시립무용단 e북 공개로 진행된 무대는 반세기를 맞은 시립무용단의 무용사적 측면이나 순수예술로서 무용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부산무용 발전과 부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힌 2020년 취임 당시 밝힌 예술 감독의 포부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축하공연을 마칠 때마다 무대와 객석을 밝히며 Special로 준비한 50주년 기념 다큐 상영을 소개하고 부산시립무용단이 한국 최초 시립무용단이라는 것 이외에 e북으로 또 다른 최초가 된다고 강조했다.

철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시대마다 철학자가 자기 자신과 세계를 전체적이고도 근원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철학의 방법과 대상을 새롭게 규정하며, 그 시대가 제기한 근원적 과제에 답했다¹⁾. 축하공연 이후에 Special로 진행된 50주년 기념 다큐 상영은 철학의 역사가 각 철학자가 자기 자신과 자기 세계에 대해 철학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시립무용단의 역사를 역대 각 안무가 및 예술감독들을 보여주며 단체와 단체의 세계에 대한 50주년 의미와 철학을 보여주려고 했다. 예술감독이 말한 창단 50주년의 의미와 철학을 담은 공연에서 팸플릿 안에 연대기의 포스터와 역대 안무가 및 예술감독의 다큐 상영 그리고 축하공연은 부산시립무용단의 50년을 연결해주었다.

이날 특별공연에서 축하공연 사이 Special이라는 타이틀마다 무대 중앙에서 예술감독은 기념 다큐 영상과 e북 공개를 직접 소개하며 부산시립무용단의 정보와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했다. 특별공연의 Special을 예술감독이 직접 소개하면서 단체 정보를 나누는 적극적인 모습은 부산시립무용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문화콘텐츠로 만들어 보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부산시립예술단 공식 홈페이지에도 시립무용단 메뉴 중 소개에 2020년 8월 한국무용계의 간판스타 무용가 이정윤 예술감독(겸 수석안무자)이 취임하면서 부산무용계와 국공립 무용 단체들의 기대와 주목을 이끌고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문화가 화두가 되고 마케팅이 키워드가 되는 시대는 10년이 넘었으며 예술계에서도 자아중심적인 작품 제작이라는 단계를 극복하고 대중들과의 감동과 공감을 도모하는 컬덕트(Culduct: Culture+Product)시대가 오래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만으로 유지하던 시대를 벗어나 민영화되고 수많은 공연기획사와 공연단체들이 생기면서 공연 분야에도 다양한 마케팅 기법 중 스타마케팅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프로 스포츠 분야처럼 하나의 스타를 만들기도 한다²⁾. 축하공연과 다큐 영상 그리고 e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스타마케팅과 더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록 이외에 역대 안무가와 예술감독의 작품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은 시간의 기록에 대한 풍성함을 전달해 줄 수 있다. 또한 춤추고 있는 무용수 역시 무대 위에서 좋은 재

료나 도구가 아닌 예술품 그 자체로 관객에게 전해지는 상호작용이 있다면 시민과의 교감이 50주년에 이르러 감정의 교류가 증폭된다. 부산시립무용단의 스타마케팅이나 수평적인 시간의 연결만큼 사람으로 쌓아가는 온기 있는 무용수나 역대 안무가의 작품에 대한 균형이 수직을 이룰 때 앞으로의 50년은 평면적인 나열 보다 입체적인 부산시립무용단 역사로 남을 수 있다.

50주년 축하공연 전부를 마치고 시립무용단 e북을 다시 방문했다. 현장에서 축하공연의 생생함을 느꼈다면 시립무용단의 e북은 시민과 가까이 그리고 더 활발한 상호작용을 위한 것으로 비록 50주년 행사에 부산시민회관 객석이 70% 정도만 채워진 아쉬움이 있지만 그 외 더 많은 대중은 시립무용단 e북으로 걸음 하겠다고 생각한다. e북은 부산시립무용단이 '공익성', '공공성'을 추구하는 단체인 만큼 시민을 위한 시스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방문한 부산시립무용단 e북 「시네마 에디션」의 경우 시기적으로 코로나19로 무대 작업이 어려울 때 진행했던 작품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이는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대부분의 시간을 코로나19로 무대 공연이 어려울 때 무용의 영상 매체화를 통한 새로운 영역 진입으로 공연예술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작업이 시도되었다. 시네마 에디션에서 보이는 작품 영상은 그동안의 무용 영상과는 다른 그 이상의 작업이었지만 e북의 메뉴 DanCE-book 메뉴의 가장 궁금한 50주년 과거의 작품은 시작과 끝도 없이 불쑥 작품의 일부가 나오기도 하거나 아직 업로드 안 된 것과 대비되기도 했다. e북을 만든 의도에 따라 영상은 속도 조절이나 되감기 기능이 없어서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중간 부분부터 갑자기 장면전환이 되는 터라 작품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면 팸플릿을 보아야 한다. 하지만 팸플릿은 화소가 흐려서 확대해서 보더라도 작품 설명이나 과거 단원들의 이름조차 읽기가 힘들다.



부산시립무용단 〈고혹〉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시립무용단 e북은 역사성과 함께 시민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 공연장보다 쉬운 접근을 시도했으나 막상 들여다보면 오히려 길을 잃게 만든다. 공연에서의 관객은 공연의 소비자만이 아니라 공연이나 무용단을 완성해주는 주체로 많은 관객을 공연장으로 이끄는 매개체는 단체의 존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도이다. 그런데 그 매개체가 관객의 편이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용자 입장을 고려 못한다면 그것의 존재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하거나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부산시립무용단 'The 50_Time to Dance'는 특별공연으로 50주년 축하공연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Special로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가치 있는 시도를 했다. 앞으로 시간순으로 배열된 평면적인 내용을 시립무용단 e북과 함께 다듬으면서 그 안에 있는 역대 안무가와 예술감독의 작품에 대해 꾸준히 기록하는 시간과 공간적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e북에서 50주년 로고만 뱅글뱅글 돌아가는 과거의 부산시립무용단 작품처럼 이야기Story는 제자리에서 맴돌 뿐 역사History가 되기 어렵다.

1)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NPAP12687120&dbt=NPAP> 한국민족대백과사전. 2023.3.15.
2) 원자승(2006). 스타마케팅을 적용한 발레 공연 마케팅 석사학위 논문

현재의 눈을 통해 과거를 조망하는, 그를 프리뷰하다

김용삼의 『그녀 모산택』을 읽고

클_문경희 수필가

삶에는 선택하는 것보다 선택되어지는 것들이 더 많다. 인간은 선택되어지는 삶 속에서 웃고 울고 아플 수밖에 없다. 여기, 『그녀 모산택』 속의 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이 그러하다. 자기 안의 자기와 복닥거리느라 힘겨웠을 김용삼 수필가에게 글이 출구가 되어주어서 참 다행이다.

어느 평론가는, '수필은 작가의 경험적 고백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문학 장르와 변별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어떤 작가는 진실을 드러내길 꺼리거나 축소하는 의도가 드러나기도 한다'라 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므로 수필 쓰기는 쉽지만,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기도 하다.

『그녀 모산택』의 우선 소회는 저돌적이라는 것이었다. 오로지 쏟아내기 위해 쏟아낸다는 느낌이랄까. 김용삼 작가는 신라문학대상 수상 시기를 기점으로 봐도, 『에세이스트』 등단을 기점으로 잡아도 수필가로서의 문력이 길지는 않다. 아픈 어제들을 전투적(적)으로 끄집어내는 뱃심이 어디에서 나왔건, 수필을 위한 수필이 그의 의도는 아니었으리라.

『그녀 모산택』은 서사 중심의 작품이 대다수다. 실상, 작가 자신도 '수필의 특징인 서사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만치 작품마다 굵직한 스토리를 안배한다. 그 스토리는 그가 살아온 내력을 추측해 해주는 단서다. 아이러니하게도 수필을 쓰는 이에게는 결핍이라든지 상처가 자산이 되기도 하나니.

『눈갈사탕』 역시 전형적인 서사수필이다. 서두의 긴장감은 결미까지 유지된다. 베토벤의 소나타 『Tempest』의 한 악장을

절묘하게 운용하는 건반 위의 손가락을 지켜보는 것 같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의 감정선을 행동의 묘사로 이끌어내는 기술이 압권이다. 한바탕의 태풍 같았던 하루의 끝, '벽 쪽으로 돌아 누운 아버지의 등이 들썩이는' 장면은 가벼운 해피엔딩, '그리하여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해버리기에 목직한 여운이 남는다.

『그녀 모산택』에서 무게감을 가진 등장인물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딸이다. 딸을 등장시킨 유일한 작품인 『파약(破約)』에서 딸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베어버린' 아버지로 인해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피해자로 서술된다. 『파약(破約)』의 대가를 치르느라 나는 지금까지 그리움의 언덕에서 시지프의 형벌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라고 고백할 만치 딸은 여전히 떠올리기만 해도 아린 존재라는 말이겠다. 당분간은 그에게 더 이상의 딸을 끄집어내라고 주문할 수 없을 듯하다.

『눈갈사탕』에서 시작된 아버지의 비사는 '아버지의 혼불', 『산19번지』, 『화투의 꿈』, 『망부 전 상서』에 걸쳐 띄엄띄엄 조명된다. '평생 폐를 다스려야 할 만큼, '노동력을 상실한 아버지는 겨우살이 처지로 묘사되는 아버지는 '술가락 하나 덜자고' 어린 자식을 남의 집으로 보낼 작정을 한다. 평생 가장으로서의 책무에서 비껴있었던 아버지를 향해 작가는 '혼란스러웠던 성장기를 모조리 아버지 탓으로만 돌리며', '애증의 웅이를 키울 수밖에 없었다.

『화투의 꿈』에서는 작가의 반감이 적나라하게 표출된다. '채오십도 안 된 아버지가 경로당에 머리를 드밀었던', '고작 화투



의 꿈으로 사내구실, 애비구실, 남편구실을 하리라 꿈꾸었던, '무기력하게 현실과 타협하는 아버지를 나는 부정하고 싶었을'... 한 편의 영화처럼 아버지라는 한 사내의 굴곡진 삶이 연속 상영된다. '유독 가시 많은 아들 앞에 던져진 200만 원 남짓의 유산의 대목에 이르러서는 '빈 집을 떠도는 유령 같은 외로움'이라는 구절이 아릿하게 떠올랐다. 작가에게 아버지를 바라보는 내적 성찰의 폭이 확장되기 시작한 지점도 그곳이었는지 모른다. 열두 폭 병풍 뒤에서 아내의 손에 의해 이승에서의 마지막 치장을 한 아버지(『망부 전 상서』). 독자들은 비로소 「눈깔사탕」의 아버지에게서 비정함을 건어내게 된다. 산만디의 역사에서 아버지의 시린 삶을 읽어볼 참이다로 결미를 맺은 「산19번지」를 보건대, 작가도 내내 원망의 불씨를 지퍼왔던 아버지를 향해 속 깊은 화해를 시도하는 중이지 않을까.

김용삼은 『그녀 모산택』을 특화시키기 위해

어머니를 선발대로 내세운다. '어머니를 보낸 후 외로움과 싸울 준비'의 일환이었음을 밝히는 것으로 책이 시작한다. 세상 가장 지고지순한 희생의 아이 콘, 어머니. 그러나 애석하게도 수필에서의 어머니는 낡고 닳은 소재다. '그리고 그런' 기시감에 대한 위험부담이 작지 않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겠다는 작정을 한 이상 그의 어머니에게는 특별한 무엇이 있을 것이란 기대로 책장을 펼치게 된다.

『그녀 모산택』, 『속^續 그녀 모산택』, 『모산택의 팡나무』는 한 여인의 대서사다. 눈물 없이 마주할 수 없는 영화처럼 어머니의 삶이란 눈물겹기 마련인 바, 글 속에서 눈물을 견어내기 위해 3인칭이라는 기법을 동원했는지도 모른다. 결국 모산택이 김용삼을 넘어 누구나의 어머니로 치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작가의 눈물 대신 독자의 눈물을 이끌어낸다면 그의 글은 성공이다.

생선 대야를 이고 도시의 골목을 누비며 자식들을 키워내는, 어머니로서의 소임에 누구보다도 충실했던 모산택.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둘째 아들 부부로 인해 그녀의 두 번째 어머니노릇은 손주들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진다. 이제 그만 평안해져도 좋을 연세에 홀로된 작가가 또 「따배기」처럼 그녀의 정수리 위에 앉았다. 한 번도 버거운 어머니노릇을 세 번씩이나 치러야 하는 어머니가 작가는 한없이 애달프다. 끝내 의연하던 어머니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작가를 보며 그만 기력을 내려놓고 만다. 어머니가 무너져도 자식은 튼튼하게 제 갈 길을 가지만, 자식이 무너지면 어머니는 함께 무너진다. 그러니 자식들이여, 부디, 어머니보다 먼저 무너지지는 마시라.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모셔두고 어렵사리 발간한 책이 『그녀 모산택』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세상의 모든 어머니께 바치는 헌사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자식들로 하여금 어머니를 환기시켜주는 각성제다. 작가의 진솔이 독자의 진솔을 이끌어내는, 그것이 『그녀 모산택』이며, 그가 추구하는 수필이었다고 해석해도 좋겠다.

김용삼 수필가는 「뒷모습」에서,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는 역사라는 E. H. Carr의 말을 빌려 이야기한다. '오로지 현재의 눈을 통해서만 과거를 조망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감추고 싶은 과거의 사실들을 현재의 공터로 불러들여 내일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어제와 어제의 사람들을 직시하는 작가가 조금은 이해된다. 그의 내일을 무한 기대하건대, 첫 수필집, 『그녀 모산택』이야말로 김용삼이라는 수필가에 의해 발현될 작품세계에 대한 프리뷰 정도일 거라 생각하며 책을 덮는다.

BAMA가 부산미술에 남긴 것과 남겨야 할 것

2023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글_구본호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관장

1. BAMA와 부산시립미술관

(사)부산화랑협회가 개최한 '2023 BAMA 제12회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이하 BAMA)가 지난 3월 2일부터 5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1, 2홀에서 열렸다. 관람객은 12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같은 시기, 벡스코 맞은편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이우환과 그 친구들' 중 하나로, <무라카미 다카시: 무라카미쵸비>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2시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전시를 볼 수 있었던 만큼 부산시립미술관은 3월 12일까지 계획했던 전시를 4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트페어

누적 방문 관람객 수 10만 명 육박, 부산시립미술관 관람객 평일 평균 2,500명, 주말 평균 4,000명 이상으로 티켓 발권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행사가 부산에 얼마나 있었을까. 같은 시간 때 인접한 장소에서 말이다. 그림을 보고 즐기고, 구매하기 위해 특정 장소를 찾는다는 것은 미술인의 입장에서는 입가에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술 전시를 찾는 것일까? 코로나19 이후 외부와의 단절에 대한 반항적 심리가 미술에 관심을 돌린 것일까?

BAMA는 작년 대비 관람객이 20% 증가했다는 통계를 냈고, 매출액은 약 21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0억 원가량 감소했다고 한다. 미술에 관심은 있으나 지갑은 열지 않았다는 것이다. 언론에 연일 보도 되는 물가상승과 국제 경제가 가장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감상은 좋으나 구매는 부담스럽다.

2. 아트페어와 MZ세대

아트페어는 갤러리들이 모여 여는 행사다. 아트페어의 성과는 갤러리 단위에서의 매출이 많은가 적은가에 있다. 어떻게 보면 관람객의 수와는 별 상관없이 보이는 행사다.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아트페어가 아니어도 옥션과 같이 작품을 구입할 경로는 다양하기 때문이다. 한때, 일부 부유층, 기업인, 의사 등과 같은 상류 계층의 전유물이던 미술품이 각종 아트페어와 미술경매시장, 인터넷 미술경매시장, 아트 펀드 등 다양한 미술시장으로 인해 접근이 쉬워지면서 변화가 생겼다.

자료들에 의하면 온라인 미술시장이 2020년도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70% 증가,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479%가 증가했다. 이코노미조선(2022. 10. 24)에서는 “한국 미술시장 1조 돌파 눈앞...아트페어 완판·인증샷 찍는 MZ세대 북적”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급증, 한국 미술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진출하는 글로벌 대형 아트페어의 잇단 개최 등이 한국 미술시장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저성장 시대 주식과 부동산의 투자 대체재로서 '아트테크(아트+테크) 열풍'이 불고 있는 것도 한몫한다. 이 같은 현상은 MZ세대가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의 활성화와 MZ세대의 적극적 참여가 미술시장의 궤도를 바꾸어 놓은 것이다. MZ세대의 온라인 미술시장이 전체 매출을 덩달아 올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이처럼 미술시장 고객층의 연령이 낮아지고 접근 방식과 취향이 바뀌었다. 미술품의 가격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미술품을 사고파는, 부동산과 같이 시세 차익을 남기고 되파는 투자 상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현저해진 것이다. 아트페어 주최 측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다.

1970년대에는 동양화를 주로 구매하였고 사실적이거나 반추상적이면서 다소 장식적인 경향을 띤 서양화를 선호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아파트 평수가 부의 척도이자 욕망의 대상이 되면서 동양화가 현격히 퇴조하는 대신 모던한 아파트 실내 공간에 어울리는 서양화가 시장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가령 2001년에서 2005년까지 경매 시장 지배율 21.6%를 차지한 박수근, 김환기, 장욱진, 천경자, 유영국 다섯 작가를 불패신화(不敗神話)라 했다. 물론 아직도 꼭 반불패라 할 수는 없지만, 예전 같지 않음은 누구나 안다. 요즘 고객의 시선과 취향 면에서 볼 때,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단순하면서 화려한 색채, 이해하기 쉬운 그림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다시 보아야 한다.

아트페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팝 계열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2010년을 전후하여 아트페어에서 많이 유통되는 그림이 '팝 계열'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예술가라면 자신의 작업 스타일에 관한 고민을 한 번쯤 했을 것이다. 이점은 지금도 여전하다. 대부분 화려하고 컬러풀한 색감, 일러스트를 보는 듯한 그림체를 사용한다는 점은 기존의 전통적인 작품처럼 아카데미한 느낌과는 상반되며, 금년 BAMA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2023년에도 이런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흐름과 함께 서서히 새로운 것을 찾는 시도 또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20세기 초중반 미술계를 강타했던 초현실주의가 재조명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메트로폴리탄미술관과 영국 테이트미술관이 공동 기획으로 '경계를 초월한 초현실주의'(2021~2022),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초현실주의 거장들: 보이만스 판비닝언 박물관 걸작전'(2021 말~2022 초)을 여는 등 많은 미술관이나 미술 전문 매체들이 초현실주의를 다루고 있다. 베니스비엔날레 기간 동안 베니스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초현실주의 전시가 진행된 것도 그렇고, 6월 13~19일에 있었던 스위스 바젤아트페어, 6월 18일 오픈한 카셀도쿠멘타,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 2022(2022. 4. 23 - 11. 27)에서도 젊은 작가들의 작품 경향에 초현실적 특성이 두드러진다고 홍익대 주연화 교수가 짚고 있기도 하다.

3. BAMA, 지역에 남겨야 할 것과 남긴 것

올해 아트페어에는 해외 갤러리 6곳을 포함해 국내외의 150여 개 갤러리가 참가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 4천여 점을 선보였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국내 대형 아트페어라 관심이 집중되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술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많아 향후 미술시장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필자도 인사동 소재 갤러리 이름으로 본 페어에 참여했다. 필자가 있는 갤러리는 인사동에서 두 번째라면 서운할 정도의 규모를 가진 갤러리다. 금년 BAMA 분위기가 이후 다른 페어의 성향을 결정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시작부터 나이, 지명도, 호당가 등을 고려한 작가군에 많은 신경을 썼다.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 힘들었다. BAMA의 전반적인 동향과 분석을 위한 관람 인원과 판매량?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작품의 수준과 작품 성향? 판매된 작품의 크기와 판매액 등등 어떤 측면을 중점으로 두고 결과보고서를 적어야 할지 고민만 남겼다. 그리고 하나 더, 본 페어가 부산이라는 지역에 무엇을 남기려고 했는지와 무엇을 남겼는지가 궁금했다.

갤러리의 본질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해답을 원론적인 곳에서부터 찾아보자. 유명작가 작품을 기획해 좋은 작품을 보여주거나, 비싼 작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좋은 갤러리가 되는 건 아니다. 갤러리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갤러리스트의 취향을 보여주는 곳이다. 특히 미술 시장에 나열된 그림들은 그래야 한다. 그래야 갤러리는 각각의 특색이 생긴다. 그 취향에 동의하는 손님이 해당 갤러리를 찾는다. 아트페어는 이런 취향에 맞는 다양한 작품을 접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갤러리에서는 투자 가치를 앞세워 유명 작가의 작품 구매를 권유한다. 갤러리는 시장에 상품을 가져왔기에 적자를 보고 돌아갈 수는 없다. 미술품은 통상 10년가량의 장기보유가 전제되어야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품의 가장 큰 가치를 투자 개념으로 보고 미술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술품을 소유함으로써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치는 단순히 처음 구매하는 값에 비해 판매할 때 값어치가 더 높아질까? 미술품이 우리 곁에 존재하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나에게 감동을 주고 그 여운이 길게 남는다면 단순히 돈의 가치를 생각하며 그 그림

을 보는 것보다 감정적 가치가 앞서게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는 그냥 내가 이끌리는 그림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노력이면 충분하다”고도 덧붙인다.

이것이 BAMA가 앞으로 남겨야 할 것이며, 5월에 열리는 ‘아트부산’에서도 남겨야 할 과제이다. 이유는 세대가 바뀌고 취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들 세대는 투자가 되면 좋고 아니어도 보고 즐기는 것에 만족한다. MZ 세대는 직관적이면서도 표현 대상이 명확한 구상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무명작가 작품이라도 본인이 보기에 좋은 그림을 찾아 ‘베팅’한다. 대부분 저렴한 가격과 소품을 중심으로 구입한다. 이들의 취향을 반영해서 갤러리로 아트페어로 이끌 갤러리만의 특색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BAMA가 부산에 무엇을 남겼나? 필자는 아직 미술에 관한 관심도 상승 외에는 찾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무라카미 다카시: 무라카미쥬비>는 교육형 전시다. 많은 시민들이 보고 즐기는 학습을 목적으로 한다. 아트페어는 판매 목적의 미술시장이지만 미술작품 감상을 통한 문화 향유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다. 미술을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한다. 같은 시기를 살고 있는 미술가의 관점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갤러리는 이런 미술가의 관점을 시장에 드러내 보이는 주체자다. 그리고 그 시장성을 넓히는 일을 한다. 마치 마르셀 뒤샹의 “예술작품은 관객이 그것을 감상하고 나서야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는 말처럼.

BAMA, 10여 년이 지난 이제는 관람객의 수와 판매와 같은 통계보다는 갤러리와 부산시민에게 그림이라는 매개를 통해 무엇을 주고받았고 무엇을 남겼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建築正記Ⅳ

길을 배려하고 삶을 담는 건축 : 건축 자유주의가 아닌 건축 민주주의를

도시 삶의 시그니처, 건축과 음식

코로나19가 엔데믹화 되면서 맞이한 올해 봄은 새삼스럽다. 외출이 한결 자유로워진 시민들에게 부산 봄의 핫플레이스는 어디일까. 영도 수변의 어느 카페나 벚꽃 핀 광안리 삼익비치가 될 수도 있겠다. 계절의 풍광까지 포함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도시의 실체는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개인의 경험과 여건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겠지만, 요즘 트렌드로는 아마도 좋은 음식과 멋진 건축이 중요한 코드가 될 수 있겠다. 1960년대에 뉴욕타임스의 첫 건축비평가를 지냈던 에이다 루이즈 허스터블 Ada Louise Huxtable도, “도시에서의 즐거움은 좋은 음식과 좋은 건물이 하나의 짝을 이룰 때 다가온다”고 했다.

여행을 하면서 좋은 식당을 찾는 것은 풍요로운 경험 중의 하나다. 더구나 오래된 노포(老舖)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실제적 효능을 넘어 정체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스페이스 코드이기 때문이다. 대를 물려온 주인과 그곳을 찾았던 단골들의 이야기, 손때 묻은 탁자에서 실내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시간의 켜들, 간판이나 외관 그리고 주변 거리까지 모두가 한 묶음의 스토리다. 알면 알수록 반하는 곳이 노포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길목을 지켜오고 있는 해장국집이나 갈비탕집 하나만 해도 그렇다. 단골들은 ‘국물이 진하고 고소하지만 개운한 맛’으로 기억하겠지만, 주인의 비법 솜씨보다는 오히려 그곳에서 가졌던 교감과 소통에 대한 기억 때문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노포만이 아니라 특정 장소를 둘러싼 집단기억에는 공간환경이 한몫하게 마련이다. 노포들은 그렇게 제멋의 공간성 내지는 장소성에서 우러나는 품격을 유지해왔다. 음식과 건축이 뗄 수 없는 관계였기에 ‘맛집’은 ‘멋집’일 수 있었다.

라이프스타일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외식이 보편적 일상이 되고 외식 비즈니스가 산업화되면서 맛집 서비스의 양태도 크게 달라졌다. 셰프와 레시피라는 낯선 용어를 앞세우고 깔끔한 디자인과 트

렌디한 인테리어를 최대한 동원하는 게 새로운 노말Normal이 되고 있다. 노포라는 시공간을 받쳐주었던 '맛'과 '멋'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인터넷의 SNS는 접근성이나 근접성, 밀집성을 토대로 해왔던 생활권 또는 상권 개념을 가볍게 건너뛸 수 있게 도와준다. 프랜차이즈와 배달음식은 '맛'과 '멋'의 분리를 유체이탈 수준으로 몰아 붙이고 있다. 브랜드를 쫓는 솔립 행태는 길거리 음식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소문난 길거리 음식들이 길을 떠나 백화점 지하의 푸드코트를 채워가고 있다. 건축과 음식을 하나의 짝으로 한 비유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다. 실생활은 물론 다양한 미디어에서도 디자인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디자인을 강조할수록 건축에서 입지^{立地}와 장소^{場所}라는 혼이 빠져나가고 있다. 진정한 건축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삶마저 빠져나간 건축은 외관이나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축소 ^{축소} 왜곡될 수

밖에 없다. 건축하는 이들과 함께 깊은 고민이 절실한 때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좋은 음식이나 좋은 건축은 자연과 풍토에 뿌리를 두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스페인의 친환경 푸아그라^(지방이 농축된 거위 간)와 도토리 먹인 이베리코 돼지고기처럼, 좋은 음식은 셰프의 레시피나 솜씨보다 기후와 풍토가 만들어낸 좋은 재료를 우선으로 한다. 건축도 마찬가지다. 디자이너의 창의적 아이디어나 실험 의지가 담긴 그랜드 디자인의 건축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의 풍토^{風土}나 풍정^{風情}을 지켜가면서 지역의 삶 속에 녹아들며 숙성되어가는 일상의 건축도 그에 못지않게 긴요하다. 일상에서 장소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보통의 건축에 대한 재인식이 절실하다. 건축이 공간을 다루는 예술인가 문화적 산물인가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 디자인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황령산에서 내려다본 수영과 마린시티





도시건축 : 관계關係의 예술, 그리고 건축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건축을 예술이라고 할 때 먼저 떠올려지는 단어가 있다. 100년이 지났어도 그 아름다움이 죽지 않고 있는 20세기 전후의 국제적 건축양식의 하나인 ‘아르누보(Art nouveau, 신예술)’ 건축이다. ‘아르누보’라는 말뜻처럼 예술의 본질은 새로움의 추구에 있다. 건축도 지속가능한 새로움을 제공할 수 있을 때 예술일 수 있다. 우리 주변의 건축은 어떠한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겠지만, 예술의 개념이 창의와 새로움, 완결과 아름다움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예술이란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고, 이어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지속가능한 새로움을 이와 같은 관계적 시선으로 접근하는 것이 부산에서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많은 건축물이 이웃 건물과 길과의 관계, 자연과 도시와의 관계, 무엇보다도 사람과 공동체와의 관계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물론 부산에만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다. 전문계에서조차 건축과 도시, 표현의 자유와 삶의 질서를 둘러싼 논의들이 여전히 갈래를 잡지 못해

왔다. 앞서 언급한 ‘아르누보’의 사례처럼 조형 예술로서의 건축은 시대정신이나 예술사조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반면에 건축을 문화경제적 속성이 강한 사회적 공간예술로 보고, 다차원적 관계의 균형 미학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그렇지 않다. 도시적 관계를 배려하고 새로운 체험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프리즘 역할을 중시한다. 이런 시선의 건축을 도시건축(都市建築)이라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럼에도 건축과 도시의 관계에서 건축은 늘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두어왔다. 건축의 자유주의(때로는 자본주의에 가까운)는 민감한 이슈다. 다양한 목적의 포식자(肉食者)들에게 도시 삶터는 ‘집은 더 크게, 간판은 더 돋보이게’를 관철해야 하는 정글이 되어왔다. 그렇다고 ‘더 돋보이고 더 화려하게’가 대안이 될 수도 없다. 건축은 길과 삶이라는 도시와 공생관계를 지켜가야 한다. 길과 삶이 사라지면 건축의 존재 기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축 자유주의(自由主義) 대신에 건축 민주주의(民主主義¹⁾)라는 용어를 강조하고 싶다. 도시건축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실천에 충실한 건축과 다르지 않다.

좋은 건축, 걷기 좋은 거리, 포용적 도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일체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생활 시스템이다. 이런 인식은 도회적 모듬살이에 요구되는 배려와 존중, 신의와 성실이라는 태도의 영역으로까지 연장될 수 있다. 짧은 글에서 건축에 대한 어려운 개념 논의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건축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시 현장으로 눈을 돌려보자. 자꾸 작년 10월 29일에 일

어난 서울 이태원 참사가 떠올려지는 이유가 뭘까? 정치행 정적 책임이나 관련 법제도 미비 등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 가 도시건축의 공공성·소통성·관계성과 관련한 기본을 너 무 소홀히 해왔음을 다시 되돌아보게 한다.

길과 삶을 담는 부산 건축 :

땅의 정의正義와 제3장소를 배려하는

길을 걷다 보면, 가로로 보행공간과 도시건축의 경계영역·외부공간이 불편과 비효율을 넘어 의외로 방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간영역은 도시를 인지하고 일상 활동의 질을 결정해주는 공간이다. 관리하기에 따라서는 소통과 공유의 장소 체험이 가능한 '제3장소화'가 가능한 영역이기도 하다. 공원·녹지·광장 등 공공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도 시에서 부동산 가치까지 고려하면 정말 안타깝다. 도시건축 의 갤러리·테라스·에트리움 등의 디자인과, 공개공지와 조경 시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건축 외부공간은 퍼블릭 어메 니티 개선과 제3장소 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잠재력 높은 공간이다. 짧은 쉽고 우연한 만남, 그리고 소통을 넘어 새로운 도시적 관계를 창출할 수 있는 매력 자산이기도 하다.

브랜드의 시대다. 장소 마케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부산의 건축물들은 그런 시대적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이 고 있을까. 대다수 건물이 '도시건축'이기는커녕 부동산이기에 급급했다. 최근 들어 공급자나 소비자들의 인식이 조금 씩 바뀌고 있다. 그렇다고 어설픈 디자인 놀이가 건축이 되 어선 안된다.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명품 만들기에 급급해 서도 안된다. 건축의 기본은 일·삶·쉽을 지혜롭게 담아내 는 데 있다. 건축이 일·삶·쉽, 즉 라이프스타일 변화의 속도와 방향에 주목해야 한다. 예술과 문화는 시간의 결실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다지면서 가야 한다. 부산에서 최고 명작은 언 제나 자연이라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자연과 교감

하지 못하는 욕망의 건축으로는 명품은커녕 양심작 근처에 도 가기 어렵다. 건축의 뿌리인 땅의 타고난 정의正義를 제대 로 읽어내는 도시건축이 쌓여가기를 기대한다. 세상에 같은 땅은 하나도 없다. 땅마다 지반地層이 있는 이유를 곰곰이 생 각하면 의외로 지혜로운 답이 나올 수 있다.

삼터 주변에서 나만의 오래된 맛집을 찾아가듯, 골목과 이웃의 삶에 관심을 기울일 줄 아는 부산 건축이 많아져야 한다. 내 삶을 풍성하게, 우리 삼터를 유익하게 가꾸어가려 는 노력이 건축에서 비롯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일상 주변의 소소한 건축들이 진정한 의미의 '도시건축'으로 다 시 태어날 때, 건축은 삶의 문화로, 사회적 공간예술로 자 리매김해 갈 수 있다. 굳이 어려운 이야기는 필요 없다. 재 료 본연의 맛을 살려주는 음식처럼, 그냥 걷기만 해도 좋은 길을 살려줄 수 있는 건축이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사랑받 는 노포 맛집이나 명소名所 '맛집은 그럴 때 덤으로 따라오 게 마련'이니까.

글_김민수 부산시 총괄건축가 경성대학교 명예교수

1) 전통적 자유주의의 대표 사상가였던 프랑스의 정치역사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 (Tocqueville)은 200여 년 전 자신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시민이 독립적이고 약하므로.....만일 이들이 서로 자발적으로 돕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모두가 무기력 상태에 빠지고 만다 고 하면서, 협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자산들 중 하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에드워드 글레이저 & 데이비드 커틀러, 이경식 옮김, 도 시의 생존(SURVIVAL OF THE CITY), 한국경제신문, 2022, 39쪽)

고대의 악기Ⅳ

삼국의 악기

삼한의 축이나 슬과 비슷한 현악기는 삼국시대에도 계속하여 제작되었다. 신라 현악기 관련 유물로는 경주 계림로 30호분 출토 **토우장식항아리**(**그림 1**)가 있다. 이 항아리의 목과 어깨 부분에는 여인이 가야금을 뜯고 있는 모습의 토우가 장식되어 있다. 이 항아리에 나타난 현악기 양이두의 크기와 모양이 정창원의 신라금, 악학궤범의 가야금, 현행 가야금의 양이두와 같아 가야금의 원형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전 월평동 유적에서 출토된 6세기 중엽으로 추정되는 양이두(羊耳頭, 가야금의 끝에 구멍을 뚫어 끈을 매는 부분으로 양의 귀처럼 양쪽으로 비죽 나왔다 해서 붙여진 명칭)는 백제 현악기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이며, 그 형태가 신라 토우에서 보이는 현악기의 양이두와 비슷하다. **대전 월평동의 양이두**(**그림 2**)에는 현을 거는 구멍이 여덟 개 뚫려 있다.

가야금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가야국의 가실왕이 중국 당나라의 쟁을 본떠서 가야금을 만들고, 성열현 사람 우륵이 12곡의 음악을 지었다고 한다. 이를 해석한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대가야 전성기의 왕인 가실왕은 지리산을 넘어 사방으로 확대되는 대가야의 국력에 어울리는 국가의례를 거행하기 위해 가야금



그림 1
토우장식항아리(위)와 토우장식항아리 세부(아래)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그림 2
양이두(위)와 양이두 복원품(아래)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그림3 백제금동대향로(국립부여박물관 소장)

을 제작하여 대가야 내 소국과 지역을 결합하는 통합력을 과시한 것으로 본다. 신라의 진흥왕이 가야금으로 음악을 작곡한 우륵을 받아들여 가야금을 신라 관리에게 전수하게 한 것도, 가야금을 국가의례에 연주함으로써 정복지를 하나의 신라로 통합하려고 한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우륵이 만든 악곡 중에는 '사자기'가 있는데, 이는 서역의 사자놀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 원래 사자는 만주나 한반도에 살지 않는 동물이지만 신라 지증왕 시절 이사부가 동해의 우산국을 정벌할 때 나무사자 형상을 만들었다는 사실과 불교가 전래되면서 만들어진 탑에는 돌 사자가 조각되기도 한 점을 근거로 신라에 사자탈이나 사자놀이가 전해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삼국의 음악에는 주변국들과의 교류 흔적도 엿보인다.

이외 백제 악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1993년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된 백제금동대향로의 **5인의 악사상**(그림 3)이 있다. 여기서 확인된 악기들은 완함고(뿔악기), 종적·배소(관악기), 북(타악기)이 있다. 이 5종의 백제 악기 중에서 완함·거문고·종적은 모두가 연대적으로 앞선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 확인되어 고구려에서 백제로 전래된 악기로 추정하고 있다. 무릎에 올려놓고 치는 북은



백제금동대향로 펼친 그림(국립부여박물관 제공)



그림4 무용총 취각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5 무용총 탄금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인의 악사상 아래에 조각되어있는 코끼리, 원숭이, 악어 등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는 동물들이었다. 그래서 백제금동대향로를 통해 다양한 교류의 흔적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도 다양한 악기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 세운 북, 매단 북, 거는 북, 메는 북 등 다양한 북 종류가 나온다. 관악기로는 **빨나팔**(그림 4, 무용총 취각도), 팬플룻과 비슷한 형태의 통소, 종적, 횡적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현악기에는 무릎에 가로로 얹어 연주하는 거문고 형태와 기타처럼 가슴에 안고 치는 완함 등이 있다. **거문고**(그림 5, 무용총 탄금도)도 가야금과 마찬가지로 악사가 악기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 제2 재상인 왕산악이 진나라의 칠현금을 변형하여 거문고를 만든 것으로 보아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가 아니라 국가 의례에 사용하는 악기로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완함**(그림 6, 삼실총 완함도)은 중국 진나라 때 죽림칠현(竹林七賢) 중 한 사람인 완함(阮咸)이 이 악기를 잘 연주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고구려의 완함은 4현짜리이고, 백제의 완함은 3현짜리인 점에서 서로 구분되나, 서양의 밴조처럼 둥근 몸통을 연주자의 가슴에 밀착시키고 왼손으로 목 부분을 잡은 후에 오른손으로 줄을 튕겨서 소리내는 점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완함은 서로 일치한다고 본다.



그림6 삼실총 원함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처럼 삼국시대에는 중국과 서역의 국가들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악기를 받아들이고 개량하여 오늘날과 비슷한 고대 악기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악기를 일상생활에서 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송 의례 및 국가 의례에도 활용하여 삼국의 음악문화를 발전시켰을 것이다.

글_임소연 복천박물관 학예사

참고 문헌

- '삼국사기', 『삼국지』, 『악학개본』
- 권주현, 2009, 『가야인의 삶과 문화』, 해안.
- 김영운, 2020, 『국악개론』, 음악세계.
- 전호태, 2000,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2016, 『한국사 속의 다문화』, 선인.
- 김성혜, 2005, 『고(箏)를 통해 본 삼국시대 음악문화』, 『우리 악기 보고듣기』, 경북대학교박물관.
- 김재홍, 2022, 『고대의 악기, 의례의 장에 울려 퍼지는 소리』, 『神을 부르는 소리, 고대의 樂器』, 복천박물관.
- 박영희, 1987, 『한국 銅鈴과 銅鐸에 對한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宋芳松, 1995, 『金銅龍蓬萊山香爐의 百濟樂器考』, 『韓國學報』, 79.
- 송방송, 『백제악기의 음악사학적 조명-금도용봉봉래산항로를 중심으로-』, 『韓國音樂史學報』 제14집.
- 이현혜, 1997, 『삼한의 문화』,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 조현중, 2006, 『한반도 선사시대 악기』, 『북녘의 문화유산』, 국립중앙박물관.
- 조현중, 2014, 『光州 新昌洞遺跡의 農耕祭祀, 『稻作農耕社會의 祭祀와 儀禮』, 국립광주박물관.
- 조현중, 2015, 『韓半島 先史時代 樂器의 社會相』, 『동아시아 고대 악기-光州 新昌洞遺跡 出土 絃樂器의 復元의 檢討-』, 국립광주박물관.
- 허선형, 2018, 『한국음악사 중심의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연구: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재)경상문화재연구원, 2018, 『부산 낙민동 100번지 유적』.
- (재)경상문화재연구원, 2020, 『부산 낙민동 100-1번지 유적』.
- 국립경주박물관, 2007, 『永川 龍田里 遺蹟』.
- 국립공주박물관 외, 1999, 『대전 월평동 유적』.
- 국립광주박물관, 2002, 『광주 신창동 저습지 유적 IV』.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 『경산 임당유적』.
- 경북대학교박물관, 2005, 『우리 악기 보고 듣기』.
- 국립경주박물관, 1996, 『국립경주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2010, 『새로운 만남 백제의 목기』.
- 국립중앙박물관, 1994,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2012, 『신창동 2000년 전의 타임캡슐』.
- 국립중앙박물관, 2015, 『동아시아 古代 樂器』.
- 국립문화재연구소, 2020, 『천상의 문양예술 고구려 고분벽화』.
- 국립부여박물관, 2014, 『국립부여박물관』.
- 국립부여박물관-부여군, 2013, 『하늘에 울리는 영민 백제금동대향로』.
- 국립전주박물관, 2009, 『마한, 숨쉬는 기록』.
- 국립중앙박물관, 2006, 『고구려 무덤벽화-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모사도-』.
- 국립중앙박물관, 2009, 『신라토요 영원을 꿈꾸다...』.
- 국립중앙박물관·국립국악원, 2011, 『우리 악기, 우리 음악』.
- 국립진주박물관, 1992, 『눈으로 보는 고대의 소리』.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중앙일보·SBS, 2002, 『특별기획전 고구려』.
- 복천박물관, 2016, 『목기, 생활의 지혜』.
- 복천박물관, 2022, 『神을 부르는 소리, 고대의 樂器』.
- 우륵박물관, 2020, 『우륵박물관』.
- 정관박물관, 2015, 『정관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e-museum <http://www.emuseum.go.kr/main>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가야금』 rinks.aks.ac.kr

부산의 현대무용역사 분석: 부산무용협회를 중심으로

목차

- I. 서론
- II. 1950년대 부산의 현대무용
- III. 1960년대와 1970년대 부산의 무용교육과 현대무용
- IV. 1980년대 부산의 현대무용과 기법
- V. 1990년대와 2000년대 부산의 현대무용
- VI. 2010년대 이후 부산의 현대무용
- VII. 부산무용협회의 현대무용활동 분석(1962년~2022년)
- VIII. 결론 및 제언

VI. 2010년대 이후 부산의 현대무용

2010년대 이후 부산무용협회 행사별 현대무용 단체의 참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일자	행사명	장소	안무	장르
1	2011. 6	제25회 청소년무용제	부산시민회관대극장	성은지	현대
2	2011. 7	제20회 부산무용제	부산문화회관중극장	손영일 조지현	현대
3	2011. 9	제49회 부산무용예술제	부산문화회관대극장	박은화	현대
4	2012. 6	제26회 청소년예술제	부산시민회관대극장	성은지 박주현	현대
5	2012. 6	제21회 부산무용제	부산문화회관중극장	이상미 허종원	현대
6	2012. 9	제50회 부산무용예술제	부산문화회관대극장	장정윤	현대
7	2012. 11	새물결춤작가전	부산문화회관소극장	김수현 안선희 강용기 이용진	현대
8	2012. 12	춤으로갈무리하다(합동)	국립부산국악원	장정윤	현대
9	2012. 2	토요상설무대	부산문화회관소극장	이상미	현대
10	2013. 5	제27회 청소년예술제	부산시민회관대극장	성은지	현대
11	2013. 7	제22회 부산무용제	부산문화회관중극장	신승민	현대
12	2013. 10	제51회 부산무용예술제	부산문화회관대극장	손영일	현대
13	2013. 11	새물결춤작가전	부산문화회관소극장	김미현 구은혜 정보람	현대
14	2014. 5	제28회 청소년예술제	부산시민회관대극장	성은지 이연주	현대
15	2014. 7	제23회 부산무용제	부산문화회관중극장	허종원 최정화 조현배	현대
16	2014. 11	새물결춤작가전	부산문화회관소극장	박은지 이연주	현대
17	2014. 12	춤으로갈무리하다	국립부산국악원	박은화 조현배	현대
18	2015. 5	제29회 청소년예술제	부산시민회관대극장	황인영 성은지	현대
19	2015. 7	제24회 부산무용제	부산문화회관중극장	김수현 손영일 안선희	현대
20	2015. 10	제53회 부산무용예술제	부산문화회관대극장	이태상	현대
21	2015. 11	새물결춤작가전	부산문화회관소극장	윤재린 김성우 이용진	현대
22	2015. 12	춤으로갈무리하다(합동)	부산문화회관대극장	김수현	현대

표5 2010년대(부산무용협회, 팸플릿 참조)

2016년-2022년 행사별 현대무용 참가단체와 안무(부산무용협회, 팸플릿 참조)

〈청소년예술제〉

- 2016. 5. 제30회 안무/김현아(김현아무용학원), 송미란(부산예고)
- 2017. 5. 제31회 안무/송미란(부산예고)
- 2018. 5. 제32회 안무/임병우(엘무용학원), 홍진희(탄뜨엠무용학원), 송미란(부산예고), 김유림(우현중학교)
- 2019. 5. 제33회 안무/송미란(부산예고)
- 2021. 5. 제35회 안무/송미란(부산예고), 홍진희(탄뜨엠무용학원), 정태민(브니엘예고)
- 2022. 5. 제36회 안무/송미란(부산예고), 홍진희(탄뜨엠무용학원)

〈부산무용제〉

- 2016. 7. 제25회 안무/문은아(현대무용단 자유), 이태상(이태상프로젝트), 박재현(줄라이댄스시어터)
- 2017. 6. 제26회 안무/이용진(댄스프로젝트egero), 김은주(경크무브먼트), 조현배(현대무용단 자유)
- 2018. 7. 제26회 안무/안선희(현대무용단 자유), 김수현(판댄스씨어터)
- 2019. 5. 제27회 안무/이승윤(현대무용단 자유), 박재현(댄스시어터경희), 손영일(손영일현대무용단)
- 2020. 6. 제29회 안무/박근태(현대무용단 자유), 정기정(하야로비현대무용단), 손영일(손영일현대무용단)
- 2021. 7. 제30회 안무/정기정(하야로비현대무용단), 허성준(판댄스씨어터), 손영일(손영일현대무용단)
- 2022. 6. 제31회 안무/이연주(현대무용단 자유)

-전국무용제 진출 현대무용(부산무용제 대상 수상 단체, 안무자, 작품명)-

- 2016. 제25회 줄라이 댄스시어터의 박재현이 안무를 맡은 <금홍아, 금홍아>
- 2017. 제26회 댄스프로젝트 에게로의 이용진 대표가 안무한 <콘크리트 인간>
- 2019. 제28회 경희댄스시어터 박재현이 안무한 <인어공주를 위하여>
- 2020. 제29회 하야로비무용단 정기정이 안무한 <해원>
- 2021. 제30회 손영일무용단의 손영일이 안무한 <안녕, 나의 존재>
- 2022. 제31회 현대무용단 자유의 이연주가 안무한 <They Live>

〈부산무대예술제(부산무용예술제)〉

- 2017. 10. 제55회 안무/김은주(김은주컨셉퍼러리무용단)
- 2018. 10. 제56회 안무/박광현(프로젝트 광)
- 2019. 10. 제57회 안무/이상미(엘댄스씨어터), 박광현(프로젝트 광)
- 2021. 10. 제59회 안무/정기정(하야로비현대무용단)
- 2022. 10. 제60회 안무/김민국(아트프로젝트 율로)

〈새물결춤작가전〉

2016. 11. 제20회 안무/이유진(이태상프로젝트), 모란(준댄스컴퍼니)
2017. 11. 제21회 안무/한지연(아름드리댄스프로젝트), 이강현(Bros무용단), 장지은(현대무용단 자유)
2018. 11. 제22회 안무/변예진(영웨이브댄스프로젝트), 박광현(프로젝트 광), 이승윤(현대무용단 자유), 허성준(본실물보관소)
2019. 11. 제23회 안무/정다래(현대무용단 자유), 김민경(프로젝트 광)
2020. 11. 제24회 안무/이혜리(현대무용단 자유), 이나라(경희댄스씨어터)
2021. 12. 제25회 안무/황정은(현대무용단 자유), 박지현(위오콜렉티브), 김민국(아트프로젝트 옴로),
염승훈(부산대현대파트), 이제형(라프텔컴퍼니)
2022. 12. 제26회 안무/박지현(위오 콜렉티브), 이인우(프로젝트 우산), 배진아(Bae 아트프로젝트), 황세민(Geek),
염승훈(댄스프로젝트 A. o. V), 이원재(이태상프로젝트), 박수인(Movement NA:IN),
박소희(뽕잡화점)

〈춤으로갈무리하다〉

2017. 12. 안무/조현배(현대무용단 자유)
2018. 12. 안무/안선희(현대무용단 자유)

2011년-2015년의 행사별 참가현황(표5)과, 2016년-2022년(최근 7년간)의 행사별 참가현황을 분석 고찰하면, 〈청소년예술제〉와 〈부산무용제〉에는 동일한 안무자 또는 단체가 계속 참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무대예술제〉와 〈새물결춤작가전〉에는 새로운 안무자가 참가하는 경향이 있고, 〈부산무용제〉와 〈새물결춤작가전〉에는 젊은 안무자들이 꾸준히 참가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용제들 각각은 경연형식 또는 비경연형식, 참가 단원들의 성향, 안무자가 지향하는 목표, 그리고 참가단체의 경력이나 특성 등에 따라 차별성을 갖는다.

Ⅶ. 부산무용협회의 현대무용활동 분석(1962년-2022년)

- 1962년 한국무용협회 부산지부 창립 후, 2022년까지의 60년간의 활동기록을 참고로 하여, 행사별로 현대무용 참가 현황을 알아본 결과, 현대무용 작품이 주로 참가한 행사와 제1회의 개최연도는 다음과 같다.

〈부산무대예술제〉(1978) 〈청소년무용제〉(1987) 〈부산무용제〉(1992) 〈영호남교류전〉(1997)
〈부산해변무용제〉(1993) 〈새물결춤작가전〉(무른안무가전 2003)

- 현대무용은 주로 1980년대 이후에 부산무용협회 행사에 참가하였다. 앞서 연대별 참가 현황에

서 살펴보았듯이 현대무용 단체와 작품의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다. 현대무용의 창작활동 무대는 부산무용계의 창조적 원동력이 되었다.

- 현대무용 참가를 연대별로 고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무용제〉는 제1회부터 중고등학교 무용부가 교사의 지도 아래 지속적으로 참가하였다. “청소년예술제는 교사와 학생 모두 참가한 부산무용협회 주최 행사였다. 당시 해운대여고(이기옥) 동래여중(박순희) 학산여고(김순희)에서 현대무용 작품활동과 교육활동이 활발했다.”(박순희¹⁾ 대담 2022. 11. 15.) 〈부산무용제〉는 1992년 제1회부터 현대무용 단체가 지속적으로 참가하였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2014년 23회와 2018년 27회 때만 제외하고는, 총10회 중에서 8회를 부산의 현대무용 장르의 단체가 부산무용제 대상 수상과 함께 전국무용제에 진출하였다. 참가단체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새물결춤작가전〉은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현대무용단체의 참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부산바다축제무용공연〉은 1995년까지 현대무용의 참가가 거의 없었다. 타 지역의 현대무용단체도 참가하였고 1997년부터 부산의 현대무용단체도 참가하였다. 〈토요상설무대무용공연〉은 2012년에 현대무용이 참가했으나 지속적으로 참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무대예술제무용공연〉은 1990년대까지는 현대무용이 거의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2000년대 이후로는 지속적인 아니더라도 다양한 현대무용단체가 꾸준히 참가하였다. 그 밖에 행사로서, 각종 강습회, 부산무용콩쿠르, 합동공연, 각종 예술제 등이 있었다.

부산의 현대무용 단체들은 1990년대 부산무용협회의 각종 무용제 공모에 참여하여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이를 통해 지역의 무용예술단체로서 부단히 발전하였다.

VIII. 결론 및 제언

- 결론 -

부산의 역사와 문화는 현시대 안무자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 시대 무용가와 작품의 탄생에 작용한다. 1920년대부터 외국의 현대무용이 우리나라에 수용되면서 배구자 최승희 조택원 등의 초기 현대무용가들이 부산의 무용교육과 창작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부산지역 현대무용의 역사를 개관하기 위해 부산무용협회를 중심으로 1962년부터 2022년까지 현대무용의 참가활동에 대해서 분석 및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950년대 부산지역에 현대무용공연이 시작되어 1970년대까지는 학원과 중고등학교에 자리를 잡았다. 1950년 박용호 등의 현대무용발표회와 학원을 통한 현대무용 지도에도 불구하고, 현대무용 장르의 작품은 196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 부산무용협회 주관의 공연에 참가가 드물었다.

- 1960년대 이전부터 일어난 부산무용의 근대적 실험성과 1960년대부터 부산무용협회를 통한 한국창작무용 공연활동은, 지역사회와 전통문화의 소재와 주제를 활용하여 그 시대 인간의 사회적, 정서적 내용을 표현함으로써 무용의 극적 측면과 시대적 감각 및 의사소통, 그리고 서술적 효과 측면에서 현대무용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부산지역의 역사와 자연을 배경으로 한 고유의 정서적, 극적 표현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면서 무용창작은 성장하였다고 생각된다.

- 1960년대와 1970년대 학원과 중고등학교에서는 현대무용을 지도하고 학생들이 무용경연대회에 참가하고 교내학예발표회 활동을 지속하도록 하였다. 부산무용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청소년예술제〉(1987년 제1회)에 현대무용작품이 지속적으로 무대에 올려졌다. 이를 계기로 현대무용은 창작활동과 전공실기 인력의 지도 및 배출

에 영향을 주었고, 안무의 실험성 등 다양한 양상을 발전시켰다.

- 1980년대부터는 부산무용협회의 공연무대에 현대무용 장르가 활발히 참가하였다. 1980년대 이후 현대무용 단체의 참가와 창작활동의 증가추세는 정형화된 현대무용기법의 전공교육으로부터 비롯된다. 1980년대부터 부산에 정착되기 시작한 현대무용의 양상은 다양한 기법 이외에도, 표현방식과 특성 그리고 미적 구조 면에 있어서 1900년 이후의 서양의 무용체계 및 예술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창작한국무용의 양상과 차별된다.
- 1990년대 이후 젊은 안무자와 단체의 <부산무용제>와 <새물결춤작가전>에의 참가자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새로운 세대의 창작무대를 통해서 현대무용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부산무용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부산에서의 다양한 무용축제와 국제교류를 위한 현대무용의 역할과 부산무용협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앞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제언 -

1. 문화정책의 기본 토대는 부산지역 현대무용의 역사를 통해 살펴본 창조적 원동력을 살려내고 그 예술적 가치와 성과를 지역사회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민의 행복을 창출하며, 세계와 인류가 공감할 수 있도록 그 활동무대를 넓혀가는 데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발적 힘과 가치를 고도로 발휘시킨 현대무용의 창조적 몸짓이야말로 사람의 살아있는 생명이 빛낼 수 있는 무궁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2020년 부산시민문화현장에 따르면, “시민의 창의적인 문화활동의 기반이며, 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문화예술 교육의 적극적인 추

진이 필요하다”(부산시민문화현장, 2020. 9. 8행)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연령이나 지역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부산무용협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강습회는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이므로 그동안의 강습회를 개최하면서 쌓아온 운영상의 경험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연령은 물론이고 장르별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오늘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현대무용 장르의 경우 오늘날 자연과 사회의 이상과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교육을 통한 창조적 가치로서의 무용의 생명력을 한층 더 빛낼 수 있다.

또한 “부산은 사회적 고립, 고령화, 도시공동화, 기후변화 등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문화가 지닌 가치와 정신으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화적 힘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부산시민문화현장 12행)고 하였다. 그런 맥락에서 현대무용의 확산이 필요하다. 부산지역의 현대무용 역사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산무용협회에서 제공하는 활동무대를 통해 생성된 지역의 독창적 무용문화적 가치를 미래에 더욱 살려내서 현대무용예술 세계를 지역민과 인류 모두가 끊임없이 향유하고 행복을 창출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부산무용협회가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지역의 풍요로운 무용의 성과를 실천하는 협회가 되기를 갈구한다.

“모든 시민은 문화 창조의 주체로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부산시민문화현장, 1행)고 하였으나 부산의 무용현장에서 무용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와 기회가 전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세대의 차이를 두지 않는 공평한 활동의 기회와 지원이 이

루어지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의 방향을 재검토하고 부산무용협회가 추구해온 길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왜 변화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2. 역량있는 안무자와 그 작품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창작활동단체 또는 개인의 재정적 뒷받침과 전문인력의 충당, 그리고 활동무대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산무용협회에서 계획한 무용제와 현대무용 활동무대의 제공 등은 부산의 현대무용의 발전에 큰 성과를 가져왔다. 앞으로도 젊은 안무자들의 창작활동의 기회가 부산무용협회를 통해 확대되고 안무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대별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기를 바란다.

글_장정윤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 이 글은 제11회 영남춤학회 학술대회(2023. 1. 13. 동아대 석당박물관)에서 일부 발표된 바 있으며,

* 본고와 관련 『예술부산』 3월호 p.76, 'IV. 1980년대 부산의 현대무용과 기법'은

'V. 1990년대와 2000년대 부산의 현대무용'으로 소제목을 바로 잡습니다.

1) 박순희는 “1974년 부산여대 제1기로 졸업 후 1975년부터 동래여고에서 현대무용과 작품지도 및 공연(거미와 잠자리)하였다. 대연어중의 전정숙과 대신여중의 안은희 등도 활약했다. 1975년에 독무 〈고도를 기다리며〉는 그 후 부산무용협회 행사에서 2인무-4인무 등 다양한 앙상블로 출연하였다. 1977년부터 동래여중에서 작품지도하였다”고 하였으며, 현대무용을 배운 것은 고등학교에서 최형지 선생님을 통해서였다고 하였고, 교육내용은 이화여대에서의 박외선의 독일표현주의 현대무용의 영향과 미국 마사추세츠 무용기법의 영향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박순희의 대담, 2022. 11. 15.참조)

참고 문헌

- 강이문(2015), 부산무용세주제, 『공연과리뷰』 21(1), p.105-110.
- 김미숙(1996), 부산무용사연구:1945년에서 1972년 중심으로, 『한국무용연구』 제14집, p.83-116.
- ____ (2022), 1950년대 부산지역 무용가의 예술활동과 위상, 『영남춤학회지』 10권 1호, p.23-52.
- 김은경(2007), 기획연재: 부산무용사, 『예술부산』 3/4월호, 5/6월호, 7/8월호.
- 김은경 외(2011), 『부산예총 50년사』(1962-2011),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 양정수(1999), 『한국현대무용사』, 대한미디어.
- 장정윤(1999), 머스 커닝햄의 무용기법에 관한 연구(2), 『무용예술학연구』제3집 1999 봄, p.1-14.
- 조영미(2021), 부산 현대무용의 변화상과 특징, 『영남춤학회지』 9권 3호, p.257-286.
- Joan Cass(1993), 『Dancing through History』, Prentice Hall.
- Nancy Reynold & Susan Reimer Torn(1980), 『In Performance』
- 장정윤 외 역(1997), 『발레와 현대무용』, 교학연구사.
- 박순희 대담 2022. 11. 15.
- 신치련 대담 2022. 12. 9.
- 하정에 대담 2019. 9. 5.
- 부산무용협회(2011-2022), 〈청소년예술제〉 팸플릿.
- 부산무용협회(2011-2022), 〈부산무용제〉 팸플릿.
- 부산무용협회(2011-2022), 〈새물결춤작가전〉 팸플릿.
- 부산무용협회(2011-2022), 〈부산무대예술제〉 팸플릿.
- 부산무용협회(2012), 〈토요상설무대〉 팸플릿.
- 부산무용협회(2012-2018), 〈춤으로 갈무리하다〉 팸플릿.
- 네이버 영어사전
- <http://e-archive.bscf.or.kr/main.php>
- <https://www.mercecunningham.org/>

부산사진작가협회 정기총회 개최...신임회장 강종관 선출



지난 2월 25일 오후 1시 30분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에서 부산사진작가협회의 제62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날은 제24회 부산사진문화상 시상식과 초대작가 및 추천작가 인증서 수여식, 공로상 시상식이 함께 열렸다. 부산 사진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부산사진문화상 본상은 김동준 회원이, 부산사진작가협회 공로상은 박한수 이양상 정경자 서경임 한미숙 최재호 허승도 광명진 회원이 수상했다. 회장 선거에는 강종관 후보가 제30대 신임회장으로 당선되어 부지회장 이상일 석원창 김정미와 함께 향후 부산사진작가협회를 이끌게 됐다. 강 신임회장은 “어려운 지회의 재정 여건을 해소하고 회원 간의 소통과 단합을 중요시할 것”이라고 취임사를 밝혔다.

부산영화인협회 정기총회 개최



부산영화인협회(회장 서영조)의 '2023 정기총회'가 3월 11일 부산예술회관 4층 회의실 열렸다. 먼저 보고사항으로 최지현 부회장의 사임으로 김지경 부회장의 보선과 임시임원회의 결과 신호국 김길수 이사의 선출이 있었음을 알렸다. 이어 청소년씨네스토리공모전, 갈매랑축제, 부산시민영화제, 작은영화콘서트 등 2022년 사업 결과를 보고했다. 심의안건으로 '2022년도 수지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2023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2023년 수지예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요청에 따라 현재 3년인 임원의 임기를 예총과 같은 4년으로 조정하는 '정관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이 상정돼 모두 승인받았다. 총회를 통해 협회는 올해 영화인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및 도약을 준비하며, 부산영화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들의 역량을 결집하자고 뜻을 모았다. 개최에 앞서 서영조 회장은 부산영화인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다한 박성호 회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부산무용협회 정기총회 개최



부산무용협회(회장 김갑용)는 2023년도 제61차 정기총회를 3월 19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개최했다. 개최에 앞서 김갑용 회장은 자신의 춤에 대해 열정을 쏟으며 협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 봉사했던 정남선, 이민선 회원에게 올해의 무용인상을 수여했다. 제36회 청소년무용경연대회, 제30회 부산무용제, 하계강습회, 제26회 새물결춤작가전 등 1년간의 행보를 돌아봤다. 감사보고에 이은 부의 안건에는 '2022년도 사업결산 보고 및 승인' '2023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건이 상정돼 승인받았다. 무용협회는 동계강습회를 시작으로 올해 청소년무용공연을 5월에, 제32회 부산무용제를 6월, 새물결춤작가전을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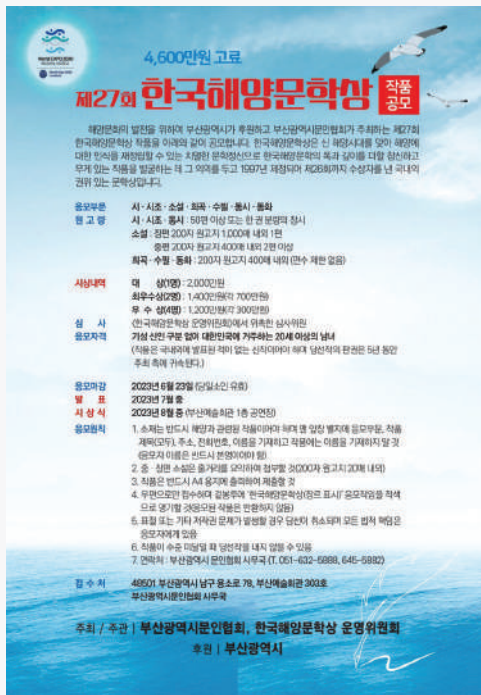


가야금병창 '민요의 대향연'

4. 22.(토) 오후 5시 30분,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완연한 봄을 그냥 보낼 수 없어 부산국악협회 가야금병창분과는 '민요의 대향연'으로 시민들을 초대한다. 이번에 연주하는 곡은 경쾌하고 빠른 자진모리 장단으로 사계를 노래한 「춘하추동」 심청가 중 심봉사가 점심을 얻어먹기 위해 마을 사람들과 부르는 「방아타령」 신 민요를 편곡해 흥겨움을 더하고 25현 병창으로 연주하는 「25현 민요」 3개의 파트로 메기고 받는 형식에 돌림노래 화음까지 곁들여 풍성한 느낌을 주는 「동백타령」 밤새도록 골패놀음에 빠져있음을 풍자한 「골패타령」과 노동요로 널리 알려진 「옹헤야」 등이다. 여기에 아랑고고 장구 반주에 맞춰 「잔칫날」 「모리나」 등이 객석의 신명을 돋운다. 태평무를 현대화한 「기원무」와 교방춤에서 입춤이나 교방춤 끝에 소고를 들고 추는 민속무용인 「소고춤」까지 더해져 귀와 눈이 모두 즐거운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강명옥 분과장은 “다양한 예술이 범람하는 현대에도 우리 소리는 아름다운 선율로 계속해서 꽃을 피워가고 있다”며 “언제 들어도 정겨운 우리 소리에 많은 추임새”를 당부했다.

문의 051)644-5211



한국해양문학상 공모

제27회 한국해양문학상이 작품공모를 시작했다. 한국해양문학상은 신 해양시대를 맞아 해양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할 수 있는 치열한 문학정신으로 한국해양문학의 폭과 깊이를 더할 참신하고 무게 있는 작품 발굴에 의의를 두고 1997년 제정되었으며,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가 후원하고 부산문인협회(회장 이석래)가 주최하고 있다.

응모는 7개 부문으로, 시·시조·동시는 50편 이상 또는 한 권 분량의 장시, 소설은 장편 200자 원고지 1,000매 내외 1편 또는 중편 200자 원고지 400매 내외 2편 이상, 희곡·수필·동화는 200자 원고지 400매 내외(편수 제한 없음)의 원고량을 요한다. 소재는 반드시 해양과 관련한 작품이어야 하며 기성과 신인의 구분 없이 대한민국 거주 20세 이상의 남녀면 응모할 수 있다. 대상(1명)은 2,000만원, 최우수상(2명)은 1,400만원(각 700만원), 우수상(4명)은 1,200만원(각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응모 마감은 6월 23일(금)까지이고 7월 중에 수상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공모 요강은 부산문인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51)632-5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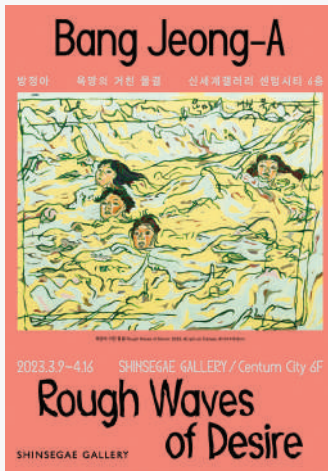


K-팝페라 콘서트

4. 14.(금)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한류 팝페라 듀오 [휴Hue]를 중심으로 열리는 'K-팝페라 콘서트'가 4월 1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개최된다. [휴]는 2013년 한국인 최초 일본 가고시마 MBC 60주년 테마 가수 선정, 2017년 동경예술극장에서 대중음악 장르 한국인 듀오 최초 승인으로 단독콘서트 개최, 2023년 6월 '다자이후 음악제' 초청 공연 예정 등 일본에서 먼저 인정받은 팝페라 듀오다. 이번 공연은 남성 3인조 성악그룹 [체스싱어즈]와 함께 'Nella Fantasia', 「My Way」 등을 선보이는 '월드 팝페라' 무대, 「엄마야 누나야」 「아름다운 나라」 등을 선보이는 '코리아 팝페라' 무대로 나뉘어 진행되어 클래식 애호가와 대중음악을 즐겨 듣는 관객들 모두에게 유쾌한 감동을 선사한다.

문의 010-9900-8399



방정아 개인전

~ 4. 16.(일)
신세계갤러리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21', 부산시립미술관 '한국현대미술작가조명 1_방정아' 전시 등에 초대된 중진 작가 방정아의 개인전이 열린다. 작가는 구상을 기반으로 개인의 일상,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 특히 '부산성'에 대한 표현과 '현재성'에 대한 성찰이 특징적이다. 3년 만의 개인전에서 그는 새로운 주제의 신작 47점과 10미터 크기의 대형회화 작품 등을 준비했다. 인간의 욕망을 다룬 '백작 놀이'와 종을 초월한 대상에 대한 애정을 담은 '열정을 대하는 태도' 시리즈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6층 신세계갤러리에서, 소소한 자연물과 동물이 등장하는 '봄의 레이어'는 1층 서관 통로 아트 팝업에서 아트콜라보로 선보인다.

문의 051)745-1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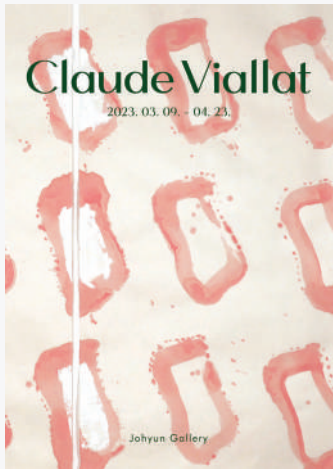


변대용 Slow Life-달빛산책전

~ 4. 23.(일)
갤러리조이

아이스크림을 머리에 이고 들고 굴리며 놀고 있는 천진한 아기곰들의 모습이 관객의 얼굴에 절로 미소를 띄우르게 하는 변대용 작가의 작품전이 갤러리조이에서 열리고 있다. 작가는 멸종 위기에 처한 북극곰을 통해 위기에 처한 환경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한편 설자리를 잃어가는 현대인의 서글픈 이야기를 아름다운 동화처럼 보여준다. 빙하가 줄어드는 환경에 처한 북극곰의 상황은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처한 상황과 비슷해 보여서인지 작가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으로 위로와 위안을 건네는 듯하다. 긍정적인 소재로 호기심 가득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작가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신작들은 'Slow Life'를 주제로 한다. 힘들게 앞만 보고 달려온 지치고 힘든 우리의 심신에 달빛 속 산책과 같은 쉼의 시간을 주고자 한다. 그에게 있어 백곰은 곧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문의 051)746-5030



클로드 비알라 개인전

~ 4. 23.(일)
조현화랑(달맞이)

조현화랑(달맞이)에서 프랑스 대표 작가 클로드 비알라(Claude Viallat, 1936~)의 개인전이 4월 23일까지 열린다. 작가는 회화의 해체를 통해 예술을 새롭게 구상하는 모더니즘 예술의 주연 중 한 명이다. 캔버스 천, 양탄자, 커튼 등 다양한 표면 위로 반복되는 추상적 패턴이 특징적인 그의 작업은 어떤 게 붓질이고, 어디까지가 표면의 물성에 따른 우연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반복으로 확장하는 색채와 형태는 새로운 창조를 이끌면서 시간의 무한성을 향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한지 시리즈 작업 18점과 더불어 197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이어져 온 작가의 작업 세계를 담은 작품 7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51)747-8853



연극 <우리는 처음 만났거나 너무 오래 알았다>

4. 25(화)~30(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어댑티 플레이스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이 일곱 번째 창작극을 선보인다. 연극 <우리는 처음 만났거나 너무 오래 알았다>는, 여성 극작가들을 주축으로 다양한 여성 문제를 다뤘은 '글과 무대'의 황정은 진주 김윤영 작가가 쓴 2인 단막극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한 작품이다. '운전하기 좋은 날' '팬미팅' '이사' 3개의 에피소드에는 사돈, 동성 연인, 스타와 팬 등 장하고, 이 여성들이 짧은 부딪힘의 순간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캐릭터를 통해 포착한다. 각 에피소드를 맡은 신예 연출가 최정배(운전하기 좋은 날) 박준혁(팬미팅) 배은채(이사)는 소극장의 특성과 2인 단막극의 묘미를 살려 감성적이고 섬세한 드라마를 선보이며 작품에 새로운 매력을 불어넣는다.

문의 010-4868-28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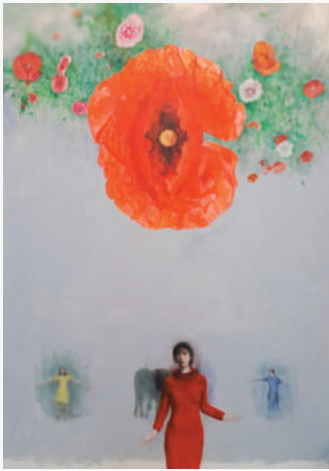


장정윤의 모든 춤 2023

4. 26.(수) 오후 7시 30분
전통공연창작마루 광무대

장정윤 동아대학교 명예교수가 4월 26일, 전통공연창작마루 광무대에서 지나온 춤길을 되돌아보는 무대를 마련한다. 장 교수는 안무가와 무용수로 198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8회의 개인 공연을 가진 바 있다. 이번 공연은 2023년 신작을 포함한 창작 2작품과 한국전통 1작품 등 3작품을 독무로 선보인다. 한국전통 무용 <승무>를 비롯해 영혼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디오니소스적 인간의 자기반영을 그린 <오랜 연못>, 그리고 시간여행에서의 아쉬운 만남을 회상하는 <Come back to me> 등이다. 그동안 창조적 결실을 바탕으로 한 원로무용가의 자유로운 무용세계를 펼쳐온 장 교수는 이 공연을 통해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 동양의 몸 마음에 가까워지려는 다양한 관심을 가진 관객과의 만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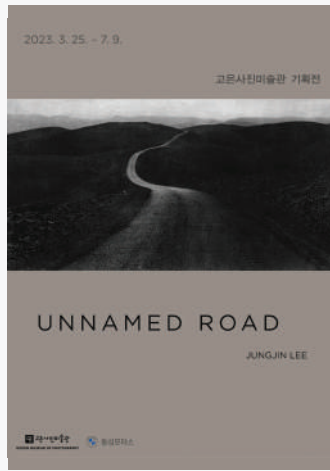
문의 010-9320-7822



김응기 작품전

4. 26.(수) ~ 5. 16.(화)
갤러리아드숲

1980년대 부산의 형상미술 경향을 주도했던 김응기 작가의 열여섯 번째 개인전이다. 작가는 인쇄된 종이에 글자와 사진이 전달하는 정보의 불확실성을 드러내고 표현한 '메모시리즈' 이후, 아틀리에 주변에 지천으로 핀 꽃들을 소재로 인간과 동물의 자태, 꽃의 표정에 대한 새로운 조형적 해석을 시도하며 꽃에 대하여를 선보였다. 자연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보다 확대된 이번 전시에서는 꽃의 형상에 사람과 동물, 문자와 기호 등의 복합이미지가 화면에 추가되었다. 변화하는 자연에서 채집한 형상을 이미지화하거나 화면에 재구성한 작품 등 20여 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부산현대미술제, 부산청년비엔날레 등을 통해 지역 미술계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부산국제아트페어특별전, 타이베이아트페어, 스트라스부르 아트페어, 제네바아트페어 등 국제적인 전시에 참가해 부산 현대미술을 널리 알렸다. 문의 051-731-0780



Unnamed Road 이정진 사진전

~ 7. 9.(일)
고은사진미술관

Unnamed Road는 사진가 이정진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프로젝트 'This Place'에 참여하며 제작한 시리즈이다. 'This Place'는 프레데릭 브레너가 기획한 프로젝트로 2010년과 2011년 12명의 다국적 사진가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지역의 모습들을 다각적으로 담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정진은 역사적 정치적 속성에서 벗어나 길가의 올리브 나무처럼 객관적으로 그 땅을 바라보려 했으나 만연한 공포와 적대감의 현실에서 좌절했다고 고백하며, 순전히 자신이 느낀 감정을 담아 수목과 같은 본인만의 색채로 풀어냈다. 사진을 찍으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명상과 같은 작업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마주한 복잡한 감정들이 시적인 이미지들로 표출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 'This Place' 시리즈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작품이 추가되어 선보인다. 문의 070-7011-5571



브런치 음악회 클래식, 차 한잔을 위한 그 순간

~ 12. 29.(금) 매주 목 오후 2시
매주 금 오전 11시 / 첼리스트의 서재

송정 광어골에 위치한 첼리스트의 서재는 첼로 아카데미, 문화강연, 북 토크 등을 진행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이곳은 첼리스트 이명로와 그의 어머니인 피아니스트 박민희가 직접 운영한다. 이들은 "송정 바다를 바라보며 첼로와 피아노의 따뜻한 음색을 듣고 감상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곳"이라고 소개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클래식, 차 한잔을 위한 그 순간'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브런치 음악회'는 4분기 기준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3월까지의 영화 <여인의 향기> OST인 C. Gardel 「Por Una Cabeza」, 김광석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영화 <미션> OST인 「Nella Fantasia」 등 15곡을 들을 수 있다.

문의 010-5029-5807



두 이름을 가진 아이 김영호 / 호밀밭

‘훌륭한 동화작가’보다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작가가 직접 찍은 사진을 함께 엮어 사 진동화집으로 펴냈다. 책에는 모두 여섯 명의 주인공이 등장한다. 폐교된 학교에 예술가들이 와서 세워둔 장승의 도움으로 예전 학교 친구들을 꿈에서 만나게 된 찬우, 관광객을 낚타에 태우고 가이드를 하며 누나가 있는 한국으로 가는 꿈을 키우는 몽골 소년 아난드,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 쓰기를 멈추고 온종일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치매 걸린 할아버지를 챙기는 재민이, 실직 후 심마니가 된 아버를 따라 나섰다 벌침에 쓰인 준이, 합창단 활동을 통해 배려와 양보심을 배우게 된 예나, 그리고 탈북하고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 재수까지. 40년 동화를 써왔고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을 한 작가는 우리 주위의 평범한 인물들을 통해 책을 읽는 모두가 낮은 곳을 돌아보고 작은 일에 공감할 수 있다면 세상이 보다 따뜻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꿈, 화분에 심다 안경덕 / 세종출판사

호기심에 찾아 나선 출렁다리였지만 결국 완주를 못했다. 중도에 포기한 것은 출렁다리 체험만이 아니다. 한자 공부도, 박물관 미술관에서 열린 강좌도, 테니스 탁구 수영 요가도 제대로 완주해 본 게 없다고 작가는 고백한다. 유일하게 지속하는 게 수필 쓰기다. 작가에게 수필은 ‘주제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 대상과 대화하는 작업’이며, ‘어떤 날은 구원’이다. (‘수필이 뭐라고, 쯤’) 그러나 수필 소재도 대부분 체험을 바탕으로 삼는데 그마저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미루며 결국은 후회한다. 그럼에도 정성으로 농사를 짓던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곡진한 농부의 마음으로 엮은 네 번째 수필집을 펴내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 본다. ‘흔들거림, 출렁거림, 비틀거림, 울렁거림을 참고 이겨내는 것이 삶이요, 문학이라고 말이다. 식물도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며 꽃 피우며, 오곡백과도 흔들리고 젖으며 열매를 맺고 여물지 않더냐고.’ (‘울렁임 속에서’, 쯤)



3시의 프레임 박영란 / 소소담담

수필과 느슨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가진 박영란 수필가의 다섯 번째 작품집이다. 글은 전체 4부로 나누어 각각 10편의 작품을 수록했다. 누구나 겪을 법한 상황과 일상에 놓여진 사물과 자연의 풍경들에 작가의 관찰이 더해져 성찰과 공감의 작품이 된다. ‘컷 수를 채우기 위해 그냥 눌러대라고 머리는 그렇게 명령하지만, 손가락에도 영혼이 있음을 체득한다. 아닌 것은, 싫은 것은 손끝의 신경세포도 절대 말을 듣지 않는다. 그 분명한 의지에 나는 소름이 돋는다.’ (‘레몬짜기’, 쯤) 디지털카메라로 500컷 ‘그까짓거’ 싶지만, 300편의 습작만큼이나 쉬운 일이 없다. 피천득은 ‘수필은 마음의 산책’으로 그 속에는 인생의 향취와 여운이 숨어 있다고 했다. 작가의 혼잣말 같은 글을 한 편씩 읽다 스스로의 경험이 오버랩되면서 공감의 고개가 절로 끄덕여짐을 발견한다.

부산예술회관은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연습실을 실비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예술회관은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순수한 열정과 참여로
대중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만나는 곳입니다.
문화적 향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연, 전시,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무한한 창작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 문화를 제공합니다.

부산예술회관 대관시설 면적

공연장	597.56㎡ (240석)		
회의실	87.62㎡	3층 전시장	122.57㎡
4층 전시장	116.32㎡	4층 연습실	102.12㎡
2층 연습실	94.05㎡	1층 연습실	52.62㎡
지하주차장	약 60대 주차 가능		

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

www.bsart.or.kr

대표전화 051) 631-1377

대관문의 051) 612-1376



예술아카데미

접수기간 : 분기 시작 1달전~개강일
 접수방법 : 전화, 방문 접수 (부산예술회관 302호)
 * 카카오톡 채널 접수 가능 '부산예술회관 아카데미' 검색
 계좌이체 : 부산은행 310-01-001290-2
 * 수강료 납부 후 꼭 연락 바랍니다.

2분기 (2023년 4~6월)

순번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요일 및 시간	수강료
1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70명	화) 13:30-15:30	* 3개월 3만원
2	한국무용교실	20명	목) 14:00-15:50(심화반)	3개월 9만원
3		20명	목) 16:00-17:50(기초반)	3개월 9만원
4	아랑고고장구	20명	수) 14:00-15:30	3개월 9만원
5	라인댄스(오전반)	20명	화,목) 11:00-11:50	3개월 9만원
6	댄스 스포츠	20명	화,목) 10:00-10:50	3개월 9만원
7	가곡교실	20명	화) 10:00-12:00	* 3개월 15만원
8	너도나도 방송댄스	20명	월,수) 17:00-17:50	3개월 15만원
9	통기타 반주법과 연주	20명	수) 16:00-18:00	3개월 15만원
10	1:1 프리미엄 피아노클래스	20명	월) 11:00-13:00	* 3개월 36만원
11	(신규) 스마트폰 사진교실	10명	목) 10:00-11:50	* 3개월 15만원

— 개강원료 — 신규강좌

※ 수강료 외 재료비, 반주, 교재비 별도
 ※ 일부강좌 수시접수 가능

청년아카데미

접수방법 : 전화, 방문 접수 (부산예술회관 302호)
 * 카카오톡 채널 접수 가능 '부산예술회관 아카데미'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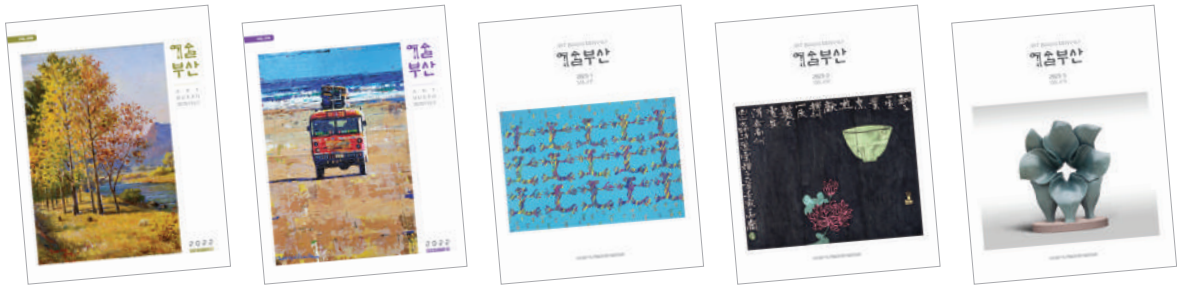
상반기 (2023년 1~6월)

순번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요일 및 시간	수강료
1	청년뮤지컬 클래스, 무랑프리	20명	토)13:00~17:00	1개월 5만원 (1~6월 과정)

마감

MECENAT & SUBSCRIPTION

부산의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을 메세나로 모십니다.



메세나 광장

MECENAT

『예술부산』은 메세나가 되어주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기반을 닦았습니다. 『예술부산』과 함께 부산의 예술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메세나를 찾습니다.

메세나 광장

안 감 찬 BNK부산은행 은행장
손 병 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예술부산』을 후원하는 광고주가 되시면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5조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드리며,
둘째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고,
셋째 월간으로 발간되는 『예술부산』을 보내드립니다.

정기구독

SUBSCRIPTION

월간 『예술부산』은 부산 시민과 예술문화인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서면 영광도서에서 해당 호를 구매할 수 있고(정가 5,000원)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술부산』 정기구독 신청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또는
이메일 artbusan@daum.net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하시고 **1년간 구독회비 30,000원**을
입금하시면 해당 호부터 보내드립니다.

부산은행 101-2024-8255-00
예금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은 여러 장르에 걸친 예술문화의 향기를 더욱 많은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우리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위 치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51층

방문 전 관람문의 (051-662-2559)

관람료는 무료이며, 토/일·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세상을 응원하는 방법

BNK 부산은행이

청년이 이끌어갈 미래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꿈을 향해 내디딘 힘찬 첫걸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열정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청년의 든든한 파트너

BNK부산은행이 함께 합니다



정가 5,000원
9 77197 697400
ISSN 1976-9741

BNK부산은행은 B스타트업링크지, 샘이큐베이터, 청년작가미술대전 등 청년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청춘의 열정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